

지금부터
필요한
수능/서

정답과 해설

국어 영역

문항

I 교과서 바탕 학습

1. 문학의 개념과 기능

교과서 바탕 적용하기

본문 013쪽

1 ○ 2 우레 소리 3 윤리적 기능 4 ③ 5 ②, ⑤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슬픔, 두려움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_김영랑

해제: 이 작품은 모란을 소재로, 소망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러한 존재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 작품에서 모란은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으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한다.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던 화자는 모란이 이내 시들어 버리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다. 하지만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대하며 봄을 기다린다. 이 시는 이러한 '기다림 → 슬픔 → 기다림'의 순환 구조를 통해 소망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심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

특징: •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심화함
• 역설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함

구성:

1~2행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림
3~10행	모란을 잃어버린 슬픔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나 뇌설 _이규보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우레 소리를 들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고전 수필, 설(說)이다. 우레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 글쓴이는 자기반성을 한 후 꺼려할 만한 잘못을 찾지 못한 다음에야 마음을 놓게 된다. 하지만 길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에게 무심하지 못한 것과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한 일이 마음에 조금 꺼리는 것이라고 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뜻뜻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뜻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삼가고 조심해야 함

특징: • 일상의 경험에서 깨달음을 이끌어 냄
• 자연 현상을 절대자의 뜻으로 여기는 동양적 사고가 드러남

구성:

처음	우레 소리를 듣고 자기반성을 함
가운데 ①	마음에 꺼리는 것 ①: 아름다운 여인에 무심하지 못함
가운데 ②	마음에 꺼리는 것 ②: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함

1 (가)에서 '모란'은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으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한다. 이렇듯 (가)는 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경험 즉 '모란'이 피는 상황을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한 문학 작품이다.

2 (나)의 글쓴이는 '우레 소리'를 들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뜻뜻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3 (나)를 읽은 독자가 문학 작품 속의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4 (가)는 대화가 아니라 화자가 독백을 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모란이 피었을 때의 찬란함과 졌을 때의 슬픔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모란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④ '뚝뚝'과 같은 감각적인 부사어를 활용하여 모란이 떨어진 상실감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⑤ 1~2행의 내용을 11~12행에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소망에 대한 기다림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5 (나)의 글쓴이는 우레 소리를 들은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에 무심하지 못한 것(⑤)과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한 것(②)은 마음에 조금 꺼린다고 하고 있다.

2. 문학의 갈래

교과서 바탕 적용하기

본문 015쪽

1 함축하여 2 × 3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 4 미완
5 허례허식 6 ③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유리창, 사대부

가 유리창 1_정지용

해제: 이 작품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에서 유리창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경계이자 화자와 시적 대상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 이 시의 화자는 유리창에서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유리창을 닦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식을 상실한 데에서 오는 외로움과 자식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에서 오는 황홀함을 느끼고 있다. 이 시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식을 잃은 화자의 안타까움을 극도로 절제하여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주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리움과 슬픔

특징: • 죽은 아이를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구체적 이미지를 느끼게 함
• 역설적 표현(모순 형용)을 통해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함

구성:

1~3행	유리에 어리는 죽은 아이의 환영
4~6행	밤의 창밖 풍경
7~8행	유리창을 닦으며 느끼는 감정
9~10행	아이의 죽음을 인식한 데에서 오는 탄식

나 허생전 박지연

해제: 이 작품은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한 한문 소설이다. 이 작품은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큰돈을 번 이야기,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빈 섬에 들어가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이야기 그리고 허생이 인재 등용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이완과 대화하는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사회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집권 세력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당대 현실의 모순을 타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무능한 사대부 계층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각성 촉구

특징: •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현실을 비판함
• 미완의 결말 구조로, 일반적 고전 소설의 결말과 차이가 있음

전체 줄거리:

발단	허생이 아내의 질책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섬
전개	허생이 빈 섬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경륜을 시험함
위기	허생이 이완에게 인재 등용을 위한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나, 이완이 이를 거절함
절정	허생이 사대부를 비판하며, 이완을 꾸짖어 쫓아냄
결말	빈 씨가 이튿날 다시 찾아가나 허생은 간 곳이 없음

수록

1 (가)는 서정 갈래로, 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비유, 상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2 (나)는 서사 갈래로,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 창조해 낸 허구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3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에서는 자식을 상실한 데에서 오는 외로움과 자식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에서 오는 황홀함이라는 모순되는 감정을 대비하여 절제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4 (나)는 주인공인 허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미완의 결말을 통해 여운을 남기며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 (나)에서 허생이 살신성인(殺身成仁)을 한 ‘변오기’와 ‘무령왕’의 고사를 인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예법만 강조하는 사대부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6 ㉔ ‘새까만 밤’은 창밖에 보이는 풍경으로,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다.

알아 두기

실학사상

조선 후기 사회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일련의 사상 체계를 말한다.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개혁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상이나 개혁의 논리는 종래의 성리학과 같을 수 없었다. 실학사상은 18세기를 전후하여 재야의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3. 문학의 수용

교과서 바탕 적용하기

본문 017쪽

1 여로형 2 × 3 묘사 4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5 ㉔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두 청년

만세전 염상섭

해제: 이 작품은 3·1 운동 직전의 동경과 경성을 배경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소설이다. 지식인인 주인공을 통해 일제에 수탈당하는 조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는 한편, 당시 지식인의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의식 구조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절망적인 현실

특징: • 주인공의 시선으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함
• 여로형 소설로 현실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를 드러냄

전체 줄거리:

발단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나’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듣고 귀국 준비를 함
전개	‘나’는 지인들과 여러 술집을 전전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녹장을 부리다 귀국길에 오름
위기	‘나’가 부산으로 가는 배 안의 목욕탕에서 조선인을 멀리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불쾌감을 느낌
절정	‘나’가 부산, 김천, 대전 등을 거치는 일정에서 일제에 탄압당하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고, 서울 집에 도착하여 답답한 분위기만 가득하다고 생각함
결말	아버지의 고집으로 아내가 죽게 되고, ‘나’는 무덤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듯 다시 동경으로 돌아감

수록

1 이 글은 동경에서 유학 중인 ‘나’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경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여로형 소설’이다.

2 이 글의 ‘나’는 일제 강점기 조선의 비참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이를 속으로만 생각할 뿐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이 글에서는 헌병과 이야기를 하는 두 청년의 모습을 ‘그 청년들의 어설프게 웃는 낯빛과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린 것은 공포 그것 같았다.’라고 묘사하여,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전달하고 있다.

4 이 글에서 ‘나’는 젊은 사람들마저 무기력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분이 치밀어 올라 혼자 속으로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의 무기력한 조선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비판한 말이다.

5 <보기>는 이 글이 창작된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한 것이다.

4. 한국 문학의 특징

교과서 바탕 적용하기

본문 019쪽

1 × 2 말뚝이 3 ③ 4 ④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체념, 양반 삼 형제

가 가시리 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淸恨)을 노래한 고려 가요로, 사랑하는 입을 떠나보내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떠나는 입에 대한 순박한 사랑을 간결한 형식과 진솔한 어조로 표현하여 서정적 측면에서도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 반복을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강조함
• 간결하고 솔직한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구성:

기	이별로 인한 슬픔과 가지 말라는 애원
승	떠나는 입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전	이별에 대한 체념
결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

나 봉산 탈춤 _김진옥·민천식 구술, 이두현 채록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전승되었던 가면극으로 재담, 춤, 노래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형상화한 종합 예술이다. 해학성과 봉건적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탈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총 7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양반춤'은 여섯 번째 과장으로,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말뚝이가 관객, 악공과 한 패가 되어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풍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말뚝이는 익살과 과장, 열거와 대조, 반어 등을 사용하여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특징: • 각 과장이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됨(옴니버스식 구성)
• 언어유희, 과장, 희화화 등의 기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
•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음

전체 줄거리:

인물의 등장	마부의 복장을 한 말뚝이가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함
양반에 대한 재담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면 양반들이 화를 내고, 말뚝이가 변명하면 양반들이 안심하는 재담이 반복됨
양반들의 글자 놀이	양반들이 시조 율기와 운자 놀이, 파자 놀이를 하며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냄
취발이	나랏돈을 횡령한 취발이를 말뚝이가 전령으로 잡아들이기
아오고, 말뚝이는 양반들과 싸고 돈벌이를 함	

소록

1 (가)는 간결하고 솔직한 여성적 어조로 입을 떠나 보내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드러낸 고려 가요이다.

2 '말뚝이'는 양반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말뚝이'는 특유의 재치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허위 의식에 젖어 있는 양반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3 '가시리'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입과 이별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恨)의 정서가 발생한다.

4 ①은 발음상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말뚝이의 말이다. 말뚝이는 양반들이 ①을 듣고 호통을 친 이후에 변명을 하고 있다.

5. 한국 문학의 흐름

교과서 바탕 적용하기

본문 021쪽

1 × 2 민요 3 ⑤ 4 ④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눈물, 정선

가 송인 _정지상

해제: 이 작품은 대동강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과 한(恨)을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는 7언 절구의 한시이다. 대동강 남포에서 입과 이별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과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싱그러운 생명력을 지닌 자연과 대비하여 강조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슬픔과 한(恨)

특징: • 자연물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이별의 정서를 심화함
• 대조, 설의, 도치, 과장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냄

구성:

기	비 갠 강변의 풍경
승	임을 보내는 슬픔
전	대동강 물에 대한 원망
결	이별의 정한

나 정선 아리랑 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전승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단한 삶의 애환, 남녀 간의 사랑 등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감정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주제: 정선 지방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입에 대한 그리움

- 특징: •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진솔하게 드러남
•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입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애환을 표현함
• 동일한 위치에서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구성:

1절	힘들어진 삶에 대한 토로
2절	늦봄의 풍경과 한의 정서
3절	강을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움
4절	입에 대한 그리움

1 고려 시대에 한자는 주로 지배층이 사용하는 문자였기 때문에 한자로 쓰인 한시 역시 지배층이 향유하는 문학이었다.

2 (나)는 민중에 의해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민요이다. 민요는 형식이 단순하고 사용된 언어가 평이하여 민중이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부르거나 지어 부를 수 있었다.

3 (가)에서는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역설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에서는 과장법을 활용해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의 기(1행)와 승(2행)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대조하고 있다.

③ (가)의 전(3행)과 결(4행)은 문장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④ (가)의 '그 언제나 다할런가'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4 (나)는 첫 연과 끝 연이 서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미쌍관의 구조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각 절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라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나)는 '정선', '아우라지', '싸릿골'과 같은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향토색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정선의 V 구멍은 V 무릉도원이 V 아니냐'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⑤ (나)의 '잠시 잠깐 입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에는 입을 만날 수 없는 화자의 그리움과 그로 인한 안타까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II 수능 유형 학습

1. 화자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25쪽

1 × 2 소극적 3 빈 배, 반벽청등 4 ③

•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긋은비, 을녀

속미인곡 _정철

해제: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정철이 전남 담양군 창평에 낙향하였을 때 지은 연군 가사이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 이별한 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작자의 분신으로 설정한 을녀와 갑녀의 대화를 통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의 마음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을 향한 그리움(연군지정)과 슬픔

특징: •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림

구성:

서사 1	갑녀의 질문(백운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서사 2	을녀의 대답(조물주의 탓이라 함)
본사 1	갑녀의 위로(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함)
본사 2	을녀의 사설 ①(임을 걱정함)
본사 3	을녀의 사설 ②(임의 소식을 알고 싶음)
본사 4	을녀의 사설 ③(임을 그리워함)
결사 1	을녀의 결심(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음)
결사 2	갑녀의 위로(긋은비가 되라고 함)

1 이 글의 중심 화자는 작자를 대변하여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을녀'이고, 보조적 화자는 질문과 위로의 말로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갑녀'이다.

2 '낙월(落月)'은 임이 계신 곳을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로, 임을 멀리서 지켜보겠다는 '을녀'의 소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3 '빈 배'와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모두 '을녀'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4 '을녀'는 자신을 버린 임을 원망하지 않고, 임과 이별한 이유를 자신과 조물주의 탓(운명론적 태도)으로 돌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러워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에 임과의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드러난다.

② '임을 모셔 봐서 임의 일을 내 알거니~기나간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나'에 입을 염려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④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방정맞은 닭 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차라리 죽어서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⑤ '가엾은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에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가 드러난다.

01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유형

익히기

본문 026~027쪽

1 ⑤ 2 ③ 3 ②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병원 2 관찰 3 동질성 4 유성 5 나무 6 외로움

가 병원_윤동주

해제: 이 작품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가슴 앓는 병이 있는 젊은 여자를 관찰하며 그녀에 대한 연민과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시대적 고통에 대한 연대 의식과 암울한 상황의 극복 기원

특징: • 시상 전개 대상이 젊은 여자에서 화자로 이동함
•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살림

구성:

1연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젊은 여자를 관찰함
2연	아픔을 참다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가 병을 모른다고 함
3연	젊은 여자와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람

나 나무_박목월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유성에서 서울까지 여로(旅路)에서 만난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사색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에서 묵중함, 진중함, 침울함을 느끼게 되는데, 서울에 돌아와서는 나무들에게서 받은 이러한 인상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무와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된다.

주제: 나무를 통해 깨달은 인생의 본질적 고독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통사 구조의 반복과 병렬의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함

구성:

1~2행	나무에게서 수도승의 묵중함을 느낌
3~5행	나무에게서 객의 침울함을 느낌
6~7행	나무에게서 파수병의 외로움을 느낌
8~10행	자신의 내면에 나무가 자리함을 깨달음

1 (가)의 화자는 가슴 앓는 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 젊은 여자의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보고 있다. 병에 걸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화자가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초월적 대상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 젊은 여자가 금잔화를 가슴에 꽃고 병실로 가는 것을 통해 그녀가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자가 그녀의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화자도 이를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화자는 병원에 있는 젊은 여자를 관찰하면서 연대 의식을 느끼고 있을 뿐, 떠나온 삶의 공간에 대한 감정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가)의 화자는 젊은 여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그녀가 올 바르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2 (가)의 화자는 '늙은 의사'에 대한 분노를 자제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 '늙은 의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가)의 화자는 '여자'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이 지닌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젊은 여자와 자신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나무'들의 위치가 아니라 '나무'들에게서 받은 인상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나무'들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일광욕을 하는 '여자'를 계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마음속에 '여자'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유성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음속에 '나무'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 없이 가슴을 앓아 아픈 '여자'의 처지에서 아픈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성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서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를 보며 자신과 그 여자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의 화자가 '여자'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어느 산마루에 서 있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하며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의 화자가 '나무'들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여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여자'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의 화자가 '여자'에 동질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게서 받은 인상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후로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리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의 화자가 '나무'들에 동질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는 여로형 구조를 지닌 작품으로, 화자가 유성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중에 만난 나무들을 보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반면 (가)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화자가 시적 대상인 '젊은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삶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존경하는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⑤ (가)의 화자는 여자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빠른 치유를 기원하고 있지만, (나)의 화자는 소망하는 삶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알아 두기

윤동주의 시 경향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섬세한 서정과 시심(詩心)으로 노래하였다. 그는 고요한 내면의 세계를 응시하려는 순결한 정신의 소유자로, 자신이 걸어야 할 삶의 길에 순응하고자 했던 인간이다. 그를 일제 말기라는 문학적 공백기에 민족적 양심을 지킨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대적 상황의 투신과 양심에서 싹튼 '부끄러움'의 인식이 시에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2. 시어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29쪽

- 1 ○ 2 (1) ③: 소멸과 허무의 공간 (2) ⑥: 깨달음의 공간 (3) ③: 생성의 공간 3 불, 물 4 반복 5 1연: 화합 2연: 평등

•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모닥불, 겨울 바다

가 모닥불 _백석

해제: 이 작품은 모닥불에서 타고 있는 재료들과 모닥불을 켜고 있는 대상들 통해 일체화된 공동체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 모닥불은 농촌의 사물과 사람들이 어울려 만드는 합일과 조화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민족의 비극성이 내포되어 있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평등하고 화합하는 공동체적 삶의 세계와 그 이면에 놓인 삶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모닥불을 통해 본 원형적 공동체의 평등과 화합

특징: • 열거와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 의식을 높임
•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함

구성:

1연	보잘것없는 것들이 모여 타는 모닥불
2연	모닥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
3연	모닥불에 서려 있는 슬픈 역사

나 겨울 바다 _김남조

해제: 이 작품은 소멸과 생성으로 대표되는 관념적이고 이중적인 겨울 바다의 이미지와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인간 존재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와 종교적인 깨달음을 통해 삶의 허무를 극복하려는 성숙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삶의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 진실한 삶에 대한 소망

특징: •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구성:

1~3연	이상과 희망의 소멸로 인한 삶의 허무와 절망
4연	삶의 현실에 대한 겸허한 수용
5~6연	삶의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7~8연	허무의 극복과 삶을 위한 새로운 의지

1 ㉠의 ‘슬픈 역사’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 몽둥발이가 된 역사를 말한다.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는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을 상징하므로 ‘슬픈 역사’는 일제로부터 주권을 빼앗긴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 (나)에서 ‘겨울 바다’의 함축적 의미는 사상 전개에 따라 소멸의 공간에서 깨달음의 공간, 생성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3 (나)의 ‘허무의 / 불’에서는 소멸, 상실, 죽음 등과 같은 ‘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고, ‘인고의 물’에서는 생성과 같은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고를 통한 허무와 절망의 극복을 표현하고 있다.

4 (가)는 보조사 ‘도’를 반복하여 여러 대상을 열거함으로써, (나)는 ‘남은 남은 / 적지만’이라는 동일한 연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5 1연의 ‘모닥불’은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들이 하나로 묶여 함께 타오른다는 점에서 ‘화합’을 상징한다. 그리고 2연의 ‘모닥불’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불을 켜는 점에서 ‘평등’을 상징한다.

0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유형 익히기

본문 030~031쪽

- 1 ③ 2 ④ 3 ⑤

• 개념으로 작품 읽기

- 1 지게 목발 2 버선짝, 토시짝 3 기럭 4 민족 5 객관적 상관물 6 방황

가 초부가 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주로 영남과 강원 산간에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할 때 불렀던 민요로, 나무꾼으로 살아가는 화자의 고달픈 삶이 실감나게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불평등한 현실을 비판하며 머슴으로 태어나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 못짐을 져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팔자로 돌리며 자신의 운명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수미 상관의 구조와 4음보의 율격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비유와 대조적 상황을 통해 나무꾼의 신세 한탄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나무꾼의 고달픈 삶과 신세 한탄

특징: •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함
• 수미 상관의 구조와 4음보의 율격으로 운율감을 형성함

구성:

1~8행	지게 일을 면하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함
9~19행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처량한 신세를 한탄함

나 길 _김소월

해제: 이 작품은 번듯한 고향이 있으면서도 정처 없이 객지를 떠돌아야 하는 나그네의 비애와 한탄을 표현한 시이다. 전통적인 율격인 3음보의 율격과 소박하고 일상적인 언어,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나그네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시는 삶의 터전을 찾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시인의 삶과 정한이 투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조국을 잃고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을 나타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유랑하는 삶의 비애와 정한

특징: •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정서를 드러냄
•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드러냄

구성:

1연	나그네의 상황 제시
2~3연	갈 곳 없는 나그네의 비애
4연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나그네의 처지
5연	기러기에 대한 부러움
6연	기로에 선 나그네의 비애
7연	갈 곳 없는 나그네의 신세

1 (가)에서 ‘짐’은 나무꾼인 화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화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삶의 무게를 의미한다. 따라서 ‘짐’이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 ‘버선짝’은 짝이 있는 사물로, 짝이 없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사물이다.

- ② ㉡ ‘헛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④ ㉢ ‘가마귀’는 불안하고 암담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화자는 가마귀가 ‘가악가악’ 우는 소리를 통해 자신의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 ‘공중’은 기러기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간이므로,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화자가 동경하는 공간이다.

2 (나)에서 화자는 ‘열 십자 복판’에 서서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자신이 갈 길은 없다고 하며 방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열 십자 복판’은 화자가 되돌아가고 싶은 원점으로서 화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향점을 상실한 화자가 어디로 갈지 갈등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그네 집’은 길 위에서 방황하는 화자가 ‘어제도’ 머물렀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목적지를 잃고 계속 유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들’은 ‘산’과 함께 고향을 잃고 떠도는 화자가 어디로도 갈 수 없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삶의 터전인 고향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화자의 슬픈 상황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주 객산’은 화자의 고향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곳은 화자에게 ‘오라는 곳’도, 화자가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갈린 길’은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가 서 있는 공간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자의 모습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 (가)의 화자가 ㉢의 ‘기력’에 ‘너도 또한 입을 잃고 입 찾아가는 길가’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기력’은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이입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가 ㉣의 ‘기러기’에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기러기’는 공중을 자유롭게 누비는 존재로, 가야할 길을 몰라 방황하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어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의 ‘기력’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의 ‘기러기’를 동경할 뿐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의 화자는 ㉢의 ‘기력’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나)의 화자는 ㉣의 ‘기러기’를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의 ‘기력’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나)의 화자는 공중을 자유롭게 누비는 ㉣의 ‘기러기’를 부러워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의 ‘기력’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고, (나)의 화자는 ㉣의 ‘기러기’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3. 표현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33쪽

- 1** ○ **2** 밤 **3**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4** 서리서리, 굵이굵이 **5** ㉡

• 작품 한변에 정리하기

밤, 장애물

가 동짓달 기나긴 밤을 ~ 황진이

해제: 이 작품은 입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한 발상으로 표현한 시조이다. ‘서리서리’, ‘굵이굵이’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입이 없어 쓸모없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잘라다가 입과 함께하는 짧은 밤에 붙이겠다는 기발한 착상은 입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작품에 신선한 느낌을 더하고 있다.

주제: 입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 특징:**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림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함

나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의인법, 과장법, 열거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뛰어넘겠다는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이는데,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사설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주제: 입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의지

- 특징:** •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기존의 유교 사회의 전형적 여인상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남

1 (가)는 입이 없는 기나긴 밤을 베어 내어, 입이 온 날에 사용하겠다고 하며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험한 고개가 막고 있어도 입이 왔다 하면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며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에서는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서리서리 넣었다가’, ‘굵이굵이 퍼리라.’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하여 입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 (나)에서는 ‘아니’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입을 빨리 만나고 싶은 화자의 적극적인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가)에서는 ‘서리서리’, ‘굵이굵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작품에 생동감과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5 (나)에서는 열거법, 과장법, 반복법, 가정법, 도치법, 의인법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색채의 대비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산진(山眞)이 수진(水眞)이 해동청(海東靑) 보라매'에서는 매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③ (나)의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에서는 바람과 구름도 쉬어 넘어야 할 만큼 높은 고개라고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고개'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⑤ (나)의 종장에서는 '그 너머 남이 왔다 하면'이라고 하며 임이 온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03 표현상의 특징

유형 익히기

본문 034~035쪽

1 ⑤ 2 ① 3 ③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절제 2 설의법 3 노동자 4 아버지 제비 5 반쪽 난 달빛 6 과거 회상

가 저문 강에 삼을 씻고 _정희성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도시 노동자의 삶을 형상화한 시이다. 중년의 노동자인 화자는 하루 일을 끝내고 흐르는 강에 삼을 씻으며 궁핍한 현실을 되돌아 보고 무기력하게 체념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궁핍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를 나타내어 산업화 과정에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소외된 이들의 한을 절실하게 그려 내고 있다.

주제: 궁핍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와 체념

특징: •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함

• 차분한 어조로 노동자의 비애를 담담하게 표현함

구성:

1~4행	강물에서 발견한 인생의 의미
5~8행	삶에 대한 무기력한 태도
9~12행	희망 없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삶
13~16행	암담한 현실에 대한 체념

나 못 위의 잠 _나희덕

해제: 이 작품은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제비의 모습을 통해 어린 시절 아버지의 힘겨운 삶을 떠올린 화자가 그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시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제비집이 너무 작아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제비의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 실업을 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달픈 현실 때문에 비애와 좌절을 느꼈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에 대한 애절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

특징: • 제비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삶을 병치하여 표현함

• '현재-과거 회상-현재'로 시상을 전개함

구성:

1~8행	못 위에서 꾸벅거리는 아버지 제비를 봄(현재)
9~25행	실업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중 나갔던 일을 회상함(과거)
26~27행	못 위 아버지 제비의 잠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함(현재)

1 (가)에서는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와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와 같이 화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여, 궁핍한 현실에 순응하는 화자의 체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계속 노동을 하여도 희망이 없는 모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는 화자가 삼을 씻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강변이라는 공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와 대조되는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격정적인 어조가 아닌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산업화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는 근경(가까이 보이는 경치)에서 원경(멀리 보이는 경치)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2 설의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인데, ㉠에서는 설의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에서는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문장 성분의 배열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인 도치법을 활용하여 제시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의 '지냈을까요'에서는 해요체의 종결 어미 '-요'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③ ㉡에서는 '종암동'이라는 실제 지명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에서는 '달빛'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피곤에 지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에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명사 '잠'으로 시를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3 (가)는 흘러가는 '강'과 반복적으로 뜨는 '달'에 빗대어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새끼들을 위해 못 위에 앉아 잠을 자는 '아버지 제비'에 빗대어 실업으로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 아버지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접속어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가)와 (나) 모두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속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대조적인 장면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나)의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시적 공간이 '종암동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골목'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물의 상황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4. 감상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37쪽

1 ○ 2 느닷없이 3 명령 4 효용론적 관점

•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복어, 목련

가 복어 _최승호

해제: 이 작품은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복어를 보면서 현대인의 확립화된 모습과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복어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제: 현대인의 무기력한 삶에 대한 비판 및 반성

특징: •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전도시켜 주제를 부각함
• 시적 대상을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대상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함

구성:

1~8행	밤의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복어의 모습
9~19행	복어를 보며 생명력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림
20~23행	무기력한 삶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화자의 반성

나 목련 후기 _복효근

해제: 이 작품은 목련의 낙화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부정하며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떨어지는 순간까지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는 목련의 낙화를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랑과 이별을 가볍게 대하는 청춘들에게 스스로를 성찰해 보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상처로 기억되는 사랑일지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고 하며 진정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쉽게 돌아서는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소망

특징: •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단호하게 전달함
•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구성:

1~8행	금세 돌아서는 사랑에 대한 부정
9~21행	사랑의 상처를 더 오랫동안 앓고 싶은 소망

1 (가)는 ‘복어’의 속성을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연결하여, (나)는 ‘목련’의 속성을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청춘의 문제와 연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가)에서 화자는 딱딱하게 굳은 복어를 보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느닷없이’ 복어에게 ‘너도 복어지’라는 말을 듣고는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3 (나)에서는 ‘말하지 말라’, ‘가지 말라’와 같은 명령적 어조를 통해 금세 돌아서는 사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 <보기>의 ‘나’는 (나)를 읽고 얻은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가치나 감동, 교훈 등에 주목하여 감상하는 관점인 ‘효용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에 해당한다.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유형

익히기

본문 038~039쪽

1 ② 2 ⑤ 3 ⑤

•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촛(燭)불 2 임금 3 가정, 과장법 4 슬퍼 5 멧찍음
6 주추리 삼대, 음성 상징어

가 방 안에 켜 있는~ _이개

해제: 이 작품은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갈 때, 단종과 이별하는 작자의 슬픔을 촛불에 이입하여 표현한 시조이다. 이 작품은 촛불이 타는 모습을 사랑하는 입과 이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촛불을 화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임금을 떠나보내는 신하의 굳은 절의와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단종)과 이별한 슬픔

특징: • 사물에 화자의 정서를 이입하여 표현함
• 여성의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냄

나 꿈에 다니는 길이~ _이명환

해제: 이 작품은 상황을 가정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재치 있게 표현한 시조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꿈에 다니는 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자신이 수없이 다녀석로라도 닳을 것이라고 하며 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꿈길에 자취가 없어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기에 이를 애석하게 여기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

특징: • 상황을 가정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함

다 님이 오마 하거늘~ 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임을 그리워하며 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사설시조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이 착각한 사실을 알고는 실망감보다는 멧찍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설시조 특유의 낙천성과 해학성이 드러난다.

주제: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특징: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함
•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징과 낙천적 사고관이 잘 나타남

1 ‘버선’, ‘신’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지만,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다. 화자가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는 것은 임에게 빨리 달려가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가리킨다. (다)에서는 ‘곰비 넘비 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와 ‘워렁충창’과 같은 의성어를 활용하여 임이 온 줄로 착각하고 서둘러 뛰어가는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던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급한 마음에 허둥거리며 달려가는 모습을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

④ (다)의 중장에서는 임에게 황급하게 달려가는 화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는 임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장의 길이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중장에서 화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여성들과 달리 임에게 달려가 ‘정(情)앓말’을 전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애정을 표현하려는 화자의 대담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 ㉔은 마침 밤이어서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는 뜻으로, 임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실망감이 아니라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황급하게 달려간 것에 대한 몇몇음이 담긴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사물인 촉불이 누구와 이별을 하였다고 의인화하여 임과 이별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㉔은 ‘저 촉불 나와 갈아서’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촉불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임과의 이별로 슬픈 화자의 심정을 심화하고 있다.

③ ㉔에서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길에 자취가 남는다고 표현한 것은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는 기발한 발상이다.

④ ㉔에서 화자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는 것은 임이 오면 황급히 달려나가기 위한 행동이므로, 여기에는 임이 오는 것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가)의 ‘방 안’은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이지만, (나)의 ‘님의 집 창 밖에 석로’는 화자가 꿈속에서 오고 간 길로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눈물’의 원관념은 추노으로, 임과의 이별로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슬픔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나)의 ‘석로라도 닳으리라’는 꿈속에서 임의 집 앞을 무수히 다녀서 그 돌길이 닳았을 것이라는 과장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③ (가)의 ‘촉불’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여기에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투영되어 있고, (나)의 ‘꿈’은 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에는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④ (가)의 ‘속 타는’과 (나)의 ‘슬퍼하노라’는 모두 부재하는 대상인 ‘임’과 관련된 화자의 안타깝고 슬픈 정서를 드러낸 표현이다.

알아 두기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뜻으로, 임금을 향한 신하의 변치 않는 충정과 절개를 형상화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 화자를 내세우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서의 「정과정(鄭瓜亭)»,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과 「속미인곡(續美人曲)」 등이 있다.

5. 인물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41쪽

1 ○ 2 간접적 3 ③ 4 ④

·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최 공, 응주

윤지경전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부마로 간택되어 강제 혼인을 하게 된 인물이 권력에 완강히 저항하여 진실한 사랑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열정 소설이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서사 구조의 개연성을 높였고 연애 소설의 소재 영역을 넓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 저항하여 꽃피어 사랑을 지킨 인물을 제시하여 기존 제도에 대한 저항과 비판 의식을 형상화하였다.

주제: 역경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진정한 사랑

특징: • 실제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하여 당시의 부조리한 상황을 비판함
• 전기적 요소를 배제하여 사실성을 높임

전체 줄거리:

발단	지경과 연화가 잇따라 죽을 병을 치르고 난 후, 양가 부모의 허락 아래 성례를 하기로 함
전개	지경이 부마로 간택되어 어쩔 수 없이 연화와 파혼하고 응주와 성례함
위기	응주와 갈등하던 지경은 임금에게 응주와의 결혼이 부당함을 아뢰다 유배를 당함
절정	박 빈은 세자를 몰아내려다 실패하고, 복성군과 응주는 귀양을 감
결말	유배에서 풀려난 지경은 연화와 가정을 이루고 응주의 사면을 요청해 세 사람이 함께 여생을 보냄

수록

1 지경은 권력에 의한 강제 결혼에 끝까지 맞서는 인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 인물이자 사건 전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주동 인물이다.

2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 제시에 해당한다.

3 지경이 최 공의 집에 밤낮으로 오자 최 공과 소저(연화)가 민망해하며 간하는 것으로 보아, 소저는 지경이 자신을 찾는 것을 반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응주는 부마인 지경이 밤낮 소저를 찾는 것은 임금의 딸인 자신을 천대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② 지경은 ‘응주는 천하 괴물 박새이고, 귀인은 간악이 비할 데 없고, 복성군은 남 혈기 심한데’라고 하며 응주를 비롯한 응주의 어머니와 오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지경은 ‘이미 얻은 사람을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응주와 화락하리요’라고 하며 응주와의 혼인이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⑤ 최 공은 ‘응주가 알면 화가 적지 아니하리니 끝을 어이할꼬’라고 하며 지경이 답을 넘어 자신의 집에 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미칠 화를 걱정하고 있다.

4 [A]에서 지경은 용주를 후대하고 그 무리에 들어가면 벌어지게 될 미래의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속뜻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윤지경전」의 문학적 의의

- 중국 소설에 대한 모방을 탈피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작품의 배경으로 하였다.
- 당시 고전 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우연성이나 전기적 요소가 거의 없다.
- 윤지경의 선견지명과 보신지계 등 고전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탁월한 복선 장치를 활용하였다.

05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유형

익히기

본문 042~043쪽

1 ③ 2 ④ 3 ⑤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공간 2 역구, 큰 키의 사내 3 산소 4 도덕적 규범
5 소주병 6 자살

동행 _전상국

해제: 이 작품은 살인범과 그를 추적하는 형사가 눈 덮인 산골의 고갯길을 동행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그린 여로(旅路)형 소설이다. 살인범인 역구는 겉으로는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지닌 인물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의 피해자이다. 작가는 이러한 역구의 상처를 형사인 큰 키의 사내가 이해하고 그를 놓아주게 그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인간애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인간애를 통한 치유

특징: • 여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여로형 구조를 지님
• 객관적 시점과 간결한 문체로 극적 효과를 높임

전체 줄거리:

발단	신분을 감춘 두 사내가 강원도 산길을 걸으며 춘천의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
전개	큰 키의 사내와 역구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큰길까지 동행함
위기	역구가 6·25 전쟁 때 자신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기구한 사연을 큰 키의 사내에게 이야기함
절정	역구가 자신의 살인죄를 자백하며, 큰 키의 사내에게 아버지의 무덤에서 자살할 뜻을 내비침
결말	큰 키의 사내는 어린 시절, 도덕 규범에 사로잡혀 담을 넘지 못해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역구의 정체를 알면서도 놓아줌

수독

1 역구가 득칠에게 '그래 벌초를 매년 해왔단구? 아 고마워, 고마워……'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고마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분노를 방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역구는 '글쎄, 나두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칠일 죽였는지……'라고 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책을 하고 있다.

② 역구는 '그 한숨 소리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라고 하며 아버지의 산소 옆에서 자살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④ 과거 담을 넘으면 안 된다는 도덕적 규범 때문에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큰 키의 사내는 그때와 달리 역구를 놓아주며 그가 자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⑤ 큰 키의 사내는 역구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소주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를 경계하며 오버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2 역구에게서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를 보게 된 큰 키의 사내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역구에게 담배를 주면서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키의 사내의 이러한 행동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이 역구와 큰 키의 사내가 함께 와야리로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은 맞지만, 전쟁의 상흔으로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역구 일 뿐 큰 키의 사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역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구장네 집을 알려 주면서 몸을 녹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키의 사내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에서 쫓기는 자의 다급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③ 역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큰 키의 사내가 역구의 삶과 상처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을씨년스럽고 초라하게 걸어가는 역구의 뒷모습에서 연민의 시선을 읽을 수 있지만,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3 [A]에서 역구는 아버지의 산소에 찾아가 술을 올리면 아버지가 '올해두 눈이 펍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루 봐선 내년두 분명 풍년이겠단만……'이라고 하실 거라고 하며 아버지의 말을 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구는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역구는 자신이 산소에 가서 할 일을 말하고 있을 뿐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

② 역구는 자신이 할 말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③ 역구는 미래의 일을 언급하고 있다.

④ 역구는 큰 키의 사내가 언급한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다.

6. 사건/갈등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45쪽

1 인물과 인물의 갈등 2 이 개 ~ 욕심이 중하나? 3 ②
4 ①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유력자

모래톱 이야기 _김정한

해제: 이 작품은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그 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조마이섬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피땀 흘려 땅을 일구며 살아왔지만 일제와 부당한 권력의 횡포 때문에 한 번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 작품은 관찰자인 '나'가 조마이섬의 내력과 섬사람들의 애환을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그에 맞서는 민중의 저항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소외된 인간들의 비참한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특징: • 부조리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지식인 관찰자에 의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고발함

전체 줄거리:

발단	20년 전 중학교 교사였던 '나'가 조마이섬에 살고 있는 건우의 집에 가정 방문을 감
전개	가정 방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윤춘삼과 갈발새 영감을 만난 '나'는 그들로부터 섬사람들이 유력자들에게 토지를 빼앗겼던 사연을 전해 들음
위기·절정	낙동강에 홍수가 날 지경이 되자 '나'는 조마이섬이 걱정되던 길을 나서고 섬사람들이 홍수를 막기 위해 독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갈발새 영감이 유력자의 앞잡이를 물속에 내던져 경찰에게 붙잡혀 간 소식을 듣게 됨
결말	갈발새 영감이 감옥에 간 후 건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조마이섬에 군대가 정지한다는 소문이 들림

수록

1 이 글은 섬사람들과 유력자의 갈등, 즉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2 이 글에서 유력자의 앞잡이인 청년들이 독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방해하자 갈발새 영감은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놈들의 욕심이 중하냐?'라고 하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글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핵심에 해당한다.

3 이 글은 '나'가 윤춘삼 씨로부터 비가 쏟아진 날 조마이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고 이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이 글은 갈발새 영감이 청년을 물에 던진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상황에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섬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갈발새 영감이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갈발새 영감의 저항이 좌절되었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② 청년을 물에 던진 사건 때문에 갈발새 영감은 경찰에 잡혀 가고 이를 본 윤춘삼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③ 청년을 물에 던진 사건 때문에 욕심이 넘은 갈발새 영감은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④ 갈발새 영감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유력자들이 하수인을 보내 독을 무너뜨리는 일을 방해하자, 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청년을 물속에 내던져 버린다.

⑤ 경찰이 청년을 물에 내던진 사람을 잡으러 왔을 때, 갈발새 영감이 '내가 그랬소!'라며 서슴지 않고 나가는 모습에서 갈발새 영감의 강직한 성격을 알 수 있다.

06 사건의 전개 양상

유형

익히기

본문 046~047쪽

1 ④ 2 ② 3 ③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만남, 헤어짐 2 흥건적, 이승 3 비극

해제: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이승과 최 여인의 애절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이 작품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하나로, 전반부는 이승과 최 여인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혼인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이야기가, 후반부는 최 여인의 죽음, 환생한 최 여인과 이승의 재회 그리고 이들의 영원한 이별로 이어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자유연애를 통해 결연이 된다는 점은 시대를 뛰어넘는 이 작품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 •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전체 줄거리:

발단	이승이 어느 날 서당에 갔다 오던 중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됨
전개	사랑에 빠진 이승과 최 여인은 이승의 부모가 반대하여 헤어지게 되지만, 최 여인의 부모가 이승의 부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됨
위기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이승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최 여인은 정절을 지키다 흥건적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됨
절정	이승이 가족을 잃어 슬퍼하던 중 환생한 최 여인이 돌아오고, 이승은 그녀가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같이 행복하게 삶
결말	운명에 따라 최 여인은 저승으로 돌아가고, 최 여인의 유골을 찾아 장사를 지낸 이승은 곧 병이 들어 죽음

수록

1 최 여인은 저승으로 떠나기 전 이승에게 '옥황상제께서 이 몸을 빌려 주어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이승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생한 최 여인이 이승과 재회함으로써 잠시 인간으로서의 시름을 풀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이승과 최 여인의 재회는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우연히 이루어진다.

② 이승과 최 여인은 재회 후 잠시나마 즐거운 세월을 보내게 된다.

③ 이승은 최 여인과 재회한 후 인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일에만 매진한다.

2 (다)에서 이승은 최 여인에게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자고 하였으나 최 여인은 이미 저승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실려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며 종적을 감춘다. 이렇게 이승과 최 여인은 운명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주인공들의 사랑이 연기된다고 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는 혼령이 된 최 여인을 이승이 다시 만난 것이므로 생사를 초월하여 사랑이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다)의 만남은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 ④ (다)에서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최 여인의 운명 때문에 주인공들이 헤어지게 된다.
- ⑤ (가)는 주인공들과 자유연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의 갈등, (나)는 주인공들과 흥건적의 난이라는 사회적 상황의 갈등, (다)는 주인공들과,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갈등에 해당한다.

3 ㉠이 발생하기 전 최 여인이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라고 하자 이생이 깜짝 놀라고 있으므로, 이생은 ㉠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1 ㉠은 흥건적의 난으로 최 여인이 죽은 사건이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은 환생한 최 여인이 사라지는 사건이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2 ㉠에서는 주인공들과 흥건적의 난이라는 사회적 상황의 갈등을 그리고 있고, ㉡에서는 주인공들과,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4 ㉡이 발생한 후 이생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5 ㉠과 ㉡은 이생과 최 여인의 이별 상황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별 상황은 이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7. 서술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49쪽

1 ○ 2 전지적 작가 시점 3 대화 4 ④ 5 ③

•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악인

사씨남정기 _김만중

해제: 이 작품은 처첩 간의 갈등을 그려 당시 사회의 축첩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가정 소설이다. 이 소설은 유교적 규범을 충실히 수행하는 현모양처인 사 부인이 간교한 교 씨의 모략으로 고생을 하지만 마침내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다. 인내와 덕성을 겸비한 사 부인의 인격을 부각하여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를 드러내고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장 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사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주제: 처첩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

특징: • 선인과 악인의 대립적 구조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 숙종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풍간의 성격을 지님

전체 줄거리:

발단	명나라 금릉 순천부에 유현의 아들로 태어난 연수는 15세에 장원 급제하여 학림학사가 됨
전개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 부인과 결혼하였으나 늦게까지 후사가 없어 교 씨를 첩으로 맞아들이고, 간악한 교 씨는 사 부인을 모략하여 그녀를 폐출시키고 결국 자신이 정실이 됨
위기	교 씨는 문객인 동청과 모의하여 유 한림을 참소하고, 유 한림을 유배시키는 데 성공함
절정	유 한림은 혐의에서 벗어나 유배에서 풀려나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은 처형을 당함
결말	사 부인의 행방을 찾던 유 한림은 그녀와 다시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와 교 씨를 처형한 후 사 부인을 다시 정실로 삼음

수록

1 이 글에서는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 지나친 것은 아닐까?'와 같이 한림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다.

3 이 글에서는 한림과 교 씨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4 ㉠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5 이 글에서는 서술자가 사 부인과 교 씨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다.

07 서술상의 특징

유형 익히기

본문 050~051쪽

1 ② 2 ② 3 ①

•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덕순 2 시간 3 순박 4 해학

맹벌 _김유정

해제: 이 작품은 중복 맹벌에 가난하고 무지한 이농민 부부가 대학 병원을 갔다 오는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과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김유정의 소설과 달리 농촌이 아닌 서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근대 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병원을 배경으로 하여, 이농민 부부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작가 특유의 해학적인 장면을 삽입하여 웃음과 슬픔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주제: 가난한 이농민 부부의 좌절과 애정

특징: • 상징성이 강한 배경을 설정하여 주제를 강조함
• 당대 민중의 비참한 삶을 해학적으로 제시함

전체 줄거리:

발단	맹벌이 내리쬘는 날, 덕순이 배가 부어오르는 병에 걸린 아내를 지게에 지고 대학 병원으로 감
전개	잠시 쉬던 덕순은 대학 병원에 가면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떠올리며 희망을 가짐
위기	대학 병원에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얼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덕순은 월급을 주지 않냐고 물었다가 무안한 당함
절정·결말	다시 지게에 아내를 지고 되돌아가던 덕순은 아내에게 얼음 냉수와 왜떡을 사 주고, 아내는 유언을 하면서 울

수록

1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인 덕순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계속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서술자가 덕순의 입장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용이 주관적이다.
 ④ 이 글은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 ㉠은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돈도 주고 치료도 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가던 덕순이 아내의 병으로는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덕순의 어리숙한 모습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여 아내가 아픈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인 의태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에서는 덕순의 성격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은 서술자의 서술이므로 내적 독백으로 볼 수 없고, 덕순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3 [A]에서는 덕순과 간호부의 대화를 통해 덕순의 무지하고 어리숙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덕순의 외양과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덕순의 힘겨운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덕순의 외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A]에서는 덕순과 간호부 사이의 갈등 해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와 <보기> 모두 현재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④ [A]와 <보기> 모두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A]와 <보기> 모두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8. 소재/배경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53쪽

1 × 2 신빙성 3 가마 4 옥지환 5 ㉡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비렁뱅이

춘향이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남원을 배경으로 이몽룡과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그린 판소리 사설이다. 다른 판소리 사설과 마찬가지로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이본(異本)이 전해지며, 이후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로 발전하였다. 이 작품은 기생의 딸인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이몽룡과의 사랑을 지켰다는 점에서 유교적 정절이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변학도와 같은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과 신분 상승을 이루고 싶은 당대 피지배층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주제: 신분을 초월한 사랑, 유교적 정절,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신분 상승의 욕구

- 특징: • 해학적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함
 •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함

전체 줄거리:

발단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에 구경을 갔다가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을 보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짐
전개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됨
위기	신임 사또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춘향은 옥에 갇혀 고초를 겪게 됨
절정	장원 급제를 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남원에 내려오고, 어사출두하여 탐관오리인 변학도를 숙청함
결말	옥에서 풀려난 춘향은 이몽룡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행복한 일생을 보냄

수록

1 이 글의 앞부분은 춘향이 갇혀 있는 '감옥'이 공간적 배경이고, 이 글의 뒷부분은 이몽룡이 공사를 처리하는 '동헌'이 공간적 배경이다.

2 구체적인 지명을 배경으로 사용하면, 독자가 사건을 실제 일어난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으므로, 작품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3 춘향이 자신이 죽은 뒤의 일을 당부하자, 이몽룡은 '오늘 밤이 새고 보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이야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가마'는 시집을 갈 때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것이므로 이는 춘향이 옥에서 구출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4 춘향은 이몽룡과 이별할 때 자신이 이몽룡에게 주었던 '옥지환'을 어사또가 갖다주자 이를 보고 어사또가 이몽룡임을 알게 된다.

5 ㉠ '본관 사또 생신 잔치'에 춘향의 처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 사또 생신 잔치'는 춘향의 생존을 위협할 사건이 일어날 배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춘향이 '서울서 편지가 왔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 '편지'는 춘향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것으로, 춘향이 이몽룡의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 '선대감 제절 아래'는 이몽룡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무덤 아래로, 죽어 서라도 이몽룡 곁에 머물고 싶은 춘향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④ ㉡ '술 한 잔'은 춘향이 이몽룡에게 자신이 죽은 후 무덤에 찾아와 혼을 위로하며 부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몽룡이 자신의 한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춘향의 소망을 보여 준다.

⑤ ㉡ '내일 날'은 이몽룡의 정체가 밝혀져 춘향의 소망이 성취되는 날로,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져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적 배경이다.

알아 두기

판소리 사설

광대 한 사람이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서사적(敘事的)인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로 엮어 발림을 곁들이며 구연(口演)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인 판소리의 대본을 말한다.

08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유형

익히기

본문 054~055쪽

1 ④ 2 ② 3 ⑤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사랑 2 발자국, 산비둘기, 나무들 3 불빛, 햇살

눈길_이청준

해제: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빛이 없다고 생각하던 인물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자수성가를 하여 어머니에게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와 집안의 몰락으로 자식에게 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미묘한 갈등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나'와 어머니의 갈등은 '나'가 눈길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화해에 도달하게 된다.

주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 화해

특징: • 대화와 회상을 통해 과거 사실을 드러내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 열린 결말로 여운과 감동을 줌

전체 줄거리:

발단	오랜만에 고향 집을 찾은 '나'가 노인에게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노인은 이를 체념한 듯 받아들임
전개	노인이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집을 개축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고, '나'는 심기가 불편해짐
위기	아내의 재촉에 노인이 '나'와 팔린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던 일을 이야기함
절정	노인이 '나'를 떠나보낸 후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함
결말	'나'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림

수독

1 이 글에서 노인은 '아침 햇살'이 부끄러워 뒷산 잣등에서 동네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은 집안의 몰락으로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한 노인의 부끄러움을 유발한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노인은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아침 햇살'을 통해 둘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글에는 '노인'의 외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아침 햇살'은 '나'를 떠나보내는 노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것으로, 노인이 미래에 겪게 될 힘든 역경과는 관련이 없다.

⑤ 이 글에서 노인은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이고 있을 뿐, '나'에게 상처를 받고 있지 않다.

2 '산길'에서 노인은 '발자국', '산비둘기', '나무들'을 보면서 아들을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길이 잘되길 빌고 있다. 따라서 '산길'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신작로'에 '나'와 노인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작로'는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노인이 시름없이 걸어 '동네 뒷산'에 당도한 것은 서두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네 뒷산'은 노인의 낙천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④ 노인이 '잣등'에 앉아 동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따라서 '잣등'은 노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⑤ 노인이 '우리 집 지붕'까지 비친 햇살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집 지붕'은 노인의 행복한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3 ㉠ '돌이 걸어진 발자국'과 ㉡ '그 몹쓸 발자국들'은 모두 아들에 대한 노인의 사랑을 환기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노인에게 아들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아들을 바라다 주는 길 위에 존재하는 발자국이다.

② ㉠과 ㉡은 모두 노인과 '나'의 발자국이다.

③ ㉠과 ㉡은 노인과 '나'가 함께 차 타는 곳까지 걸으며 생긴 발자국이므로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④ ㉡의 '몹쓸'이라는 표현에서 노인의 감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알아 두기

전깃불 체험

「눈길」의 작가 이청준은 어린 시절 광 속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버지의 전깃불로 인해 깨어나게 된다. 이때 작가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 숨어 버리고 싶었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깃불 체험이다. 「눈길」에서 '나'가 불빛 아래에서 너무 부끄러워 눈을 뜰 수 없는 장면도 작가의 전깃불 체험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감상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57쪽

1 ○ 2 선표 3 ① 4 ③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만능주의, 지식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_박태원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로, 소설가 구보가 경성(서울)을 하루 동안 배회하면서 느낀 내면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이 소설은 사건이나 갈등과 같은 서사 구조보다는, 연관성이 없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의식의 변화를 의식의 흐름 기법이나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구보의 시선을 통해 군중 속의 고독과 물질 만능주의 같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여러 병폐들을 보여 주고 있는데, 구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대체로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소설가 구보의 모습에는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진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의 눈에 비친 경성의 일상
 특징: • 인물의 하루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됨
 • 인물의 내면 의식을 의식의 흐름과 몽타주 기법으로 서술함
 전체 줄거리:

발단	[집]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한 소설가 구보가 외출을 하자 어머니가 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봄
전개	[경성 거리] 구보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함 [전차 안] 과거에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하고 외면한 것을 후회함 [다방] 차를 마시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함 [경성역] 온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고독을 느끼고, 우연히 중학 동창을 만남 [다방] 사회부 기자인 벚이 돈 때문에 매일 살인 강도와 방화범의 기사를 써야한다는 사실에 애달파하고, 연인들을 바라보며 질투와 고독을 느낌 [경성 거리] 옛 사랑을 추억하며 그 여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벚의 조카 아이들을 연민함 [다방] 외교원에게서 속물 근성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벚과 함께 술집으로 향함 [술집] 벚과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간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낌
결말	[경성 거리] 구보가 어머니를 위하여 결혼도 하고 창작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으로 향함

1 이 글은 사건의 인과성 없이, 구보가 인물과 사물을 관찰한 내용과 그에 대한 느낌을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2 이 글의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과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등에서는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3 ㉠은 사내가 방약무인한 소리로 자신을 부르자 창피함을 느낀 구보가 그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다. 따라서 ㉠에는 구보의 '거부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4 <보기>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사회상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는 감상이므로, 이는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09 작품의 종합적 감상

유형 익히기

본문 058~059쪽

1 ㉠ 2 ㉡ 3 ㉢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해학, 풍자 2 피지배층 3 수용 4 창작

배비장전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 12마당 중 하나인 「배비장 타령」이 소설화된 판소리계 소설로, 배비장이라는 인물의 위선과 이중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당시 지배층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던 배비장이 방자와 애랑의 계교에 빠져 여색에 유혹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양반들의 위선적 면모를 해학적으로 비판하고,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던 당시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양반의 위선에 대한 풍자

특징: • 행동 묘사와 대화를 통해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함
 •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드러나고 운율감이 있는 표현을 활용하는 판소리 사설의 문체적 특징이 남아 있음

전체 줄거리:

발단	비장으로 뽑혀 제주도로 가게 된 배선달이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 장면을 보고 애랑에게 돌아나는 정비장을 비웃음
전개	기생과 술자리를 멀리하는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해 목사의 지시로 방자와 애랑이 계교를 꾸밈
위기	어느 날 애랑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애랑을 못 잊어 병이 난 배비장은 애랑에게 편지를 보내 밤에 몰래 처소로 오라는 답신을 받음
절정	겨우 애랑을 만난 배비장은 방자가 서방인 척 들어오자 자루 속에 들어갔다 방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다시 궤로 몸을 옮기지만 역시 수모를 당함
결말	궤가 동헌으로 운반되고 궤가 바다에 던져진 줄 안 배비장이 도움을 청하자 궤의 문이 열려 망신을 당함

1 애랑의 집에 몰래 들어가다 애랑에게 발각된 배비장은 애랑에게 미친게 취급을 당하자 개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애랑이 그림 무엇이나고 문자 배비장은 자신을 낮추어 '배 걸덕쇠'라고 말을 한다. 따라서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자마자 '배 걸덕쇠요.'라고 격식을 차리고 말하는 것은 다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통해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는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만가만 V 자취 없이 V 들어가서 V 이리 기웃 V 저리 기웃'에서는 4글자의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배비장이 문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행동을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거동 보소'는 판소리 창자의 상투적인 말투이므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방자의 제안에 따라 배비장이 '구록피 두루마기에 노퍽거저'를 쓰는 웃긴 복색을 하게 되므로 여기에는 서민 계층에 의해 조롱당하는 지배 계층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애랑을 찾아가다 담 구멍에 걸려 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한자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배비장의 모습을 통해 양반 계층의 허세를 풍자하고 있다.

2 ㉠에는 방자를 위하는 배비장의 사려 깊은 태도가 아니라 애랑을 꼭 만나러 가고 싶다는 배비장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도야지'가죽'이라도 입겠다는 배비장의 말을 통해 방자가 무엇을 입으라고 하든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는 대나무로 엮은 창을 돌아 소나무로 만든 댓돌에 다다랐다고 하며, 배비장과 방자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㉔에서는 배비장이 담 구멍에 걸린 상황에서도 한자어로 말을 하는 것을 통해 배비장의 허세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양반의 허위를 풍자하고 있다.
- ⑤ ㉔에서는 '담배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붉은 안개'에 빗대어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 [A]에서 배비장은 애랑의 만나러 가기 위해 방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 [B]에서 배비장은 애랑의 문 앞에서 애랑을 몰래 훑쳐 보고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에는 양반으로서의 체면보다는 애랑을 만나고 싶은 욕망을 따르고 있는 배비장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밤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B]에서는 '깊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③ [A]에서는 '방자의 제안 → 배비장의 주저 → 방자의 부추김 → 배비장의 수용'의 재담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B]에서는 '커 놓은 등불이 밝다 한들 너를 보니 어두운 듯, 피는 복숭아꽃이 곱다 하되 너를 보니 무색한 듯'과 같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④ [A]에서는 애랑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복색을 준비하는 상황을, [B]에서는 애랑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A]는 배비장과 방자의 대화를 통해, [B]는 작품 밖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10. 수필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61쪽

1× 2 유추 3③ 4④

•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유추

보망설 _이건명

해제: 이 작품은 귀양 중이던 글쓴이가 정 군과의 대화에서 얻은 깨달음을 서술한 한문 수필, 설(說)이다. 글쓴이는 정 군에게 오래되어 망가진 그물을 손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혼란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유추해 내고 있다. 글쓴이는 느슨해져 해진 그물과 같은 어지러운 현실을 한탄하며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위정자를 비판하고, 정 군과 같이 꾸준한 탐구와 성실한 노력으로 이 혼란을 잡아 줄 훌륭한 인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주제: 혼란한 현실을 바로 잡을 방안과 이를 실천할 인재의 필요성

특징: •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함
•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구체화함

구성:

처음	정 군에 대한 소개와 그물 손질 방법에 대한 질문
가운데	정 군의 그물 손질 방법에 대한 설명
끝	정 군 같은 인재의 필요성에 대한 깨달음

1 이 글은 글쓴이가 정 군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2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정 군에게 들은 망가진 그물을 손질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는 방법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이는 유추에 해당한다.

3 이 글의 글쓴이는 '벼리는 끊기고 코는 엉키어서 온갖 것이 느슨해져 해진 그물과 같으니 말세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이 글의 글쓴이는 '어리석은 중놈에게 맡겨 그르치게 하여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당하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되인가?'라고 하며 어리석은 위정자가 정치를 맡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10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유형 익히기

본문 062~063쪽

1④ 2③

•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낯설 2 직유 3 친구 4 동지애, 동반자

해제: 이 작품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표현한 수필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학창 시절 친구들과 헤어져 낯설고 외로웠던 신학기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황폐한 세상살이에 낯가림하며 사는 나날 속에 남겨졌다고 하며, 이러한 험난한 인생 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 헤쳐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영혼을 함께 나눌 진정한 친구라고 하고 있다.

주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의 소중함

특징: • 직유법, 은유법, 도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나타냄
• 학창 시절과 대비하여 현재의 상황을 나타냄

구성:

처음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신학기의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힘든 인생에서 영혼을 나눌 친구를 만나는 것의 즐거움
끝	상호 간의 교류인 우정

1 이 글의 글쓴이는 힘든 인생을 헤쳐나갈 때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구는 인생이란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친구, 혹은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는 힘들 때 친구의 고난을 털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글의 글쓴이는 친구의 잘못이나 문제에 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동지애', '동반자'와 같이 친구와 통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친구와 말이 필요 없이 마음만으로 통해야 한다고는 하고 있지 않다.

⑤ 친구와 관계 형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사업에 실패해서 낙향한 친구와 함께 시골에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직접 친구와 함께 시골에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새로운 급우들한테서 낯설을 실컷 맛봐야 하는 신학기',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등의 구절을 통해 글쓴이가 신학기 때 낯설과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의 항해는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한 일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학창 시절보다 세상살이가 더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그런 친구와 돈독한 우정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힘든 삶을 함께 헤쳐 나갈 친구가 있다면 실패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바로 이때에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라는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필요성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알아 두기

수필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

- 특이한 사건이나 사물 또는 일상적인 사건이나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소재로 삼음
- 세계나 사물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나 태도를 드러내어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나타냄
- 글쓴이 특유의 어조 및 표현 방식을 사용하거나 독특한 어휘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의 글과 다른 문체를 구현함

11. 국

수능 개념 적용하기

본문 065쪽

1 ○ 2 오발탄 3 유성 4 ㉓

작품 한 번에 정리하기

해방촌

오발탄 _ 이범선 원작, 나소윤·이종기 각색

해제: 이 작품은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철호 가족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전후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철호, 가난 때문에 웃음을 잃은 철호의 아내, 고향에 돌아가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어머니, 물질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영호, 양공주가 된 명숙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전후의 불안하고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야 할 곳을 몰라 택시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철호의 모습은 전후 사회의 혼란 속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전후의 비참한 현실로 인한 한 가족의 절망

특징: •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제 의식을 보여 줌

• 인물의 내면과 허무 의식 표출에 중점을 둠

전체 줄거리:

발단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철호가 어머니, 만식의 아내, 남동생 영호, 여동생 명숙과 해방촌 판잣집에서 근근이 살아감
전개	어머니는 전쟁의 충격으로 '가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명숙은 양공주가 되었으며, 영호는 제대 후 방황하고 있지만 철호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성실히 살아감
절정	영호가 은행 강도로 수감되고, 아내가 출산을 하다 세상을 떠나자 철호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이르게 됨
하강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던 철호는 치과에 들러 평소 알고 있던 이를 모두 뽑아 버리고 과도한 출혈로 점차 의식을 잃어 감
대단원	택시에 올라탄 철호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가자…….'라고 외침

수록

1 이 글은 철호의 가족을 통해 전후의 불안했던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당시의 부조리를 고발한 작품이다.

2 '오발탄'은 삶의 무게 때문에 방향을 잃고 헤매는 철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이다.

3 'S#121'의 '유성'은 추락하는 철호의 절망적인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4 'S#118'의 '아이는 몇 번 앙! 앙! 거리더니 이내 그친다.'는 철호의 아이가 죽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병원을 화사한 분위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철호는 아내가 죽고 동생 영호가 체포된 상황에서 이를 뽑은 것이므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철호의 지시에 따라 택시가 이리저리 커브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왕좌왕하는 택시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라는 철호의 독백에서 그가 지닌 삶의 무게를 알 수 있다.

⑤ 유성은 생명을 다해 떨어지는 별로, 길게 꼬리를 물며 유성이 떨어지는 장면을 넣으면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 철호의 처지와 방향 상실로 인한 절망적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다.

11 작품의 형상화

유형 익히기

본문 066~067쪽

1 ④ 2 ⑤

개념으로 작품 읽기

1 결혼 2 증인 3 긴장감 4 덤

결혼 _이강백

해제: 이 작품은 어느 빈털터리 남자의 극적인 결혼 성공담을 통해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단막극이다. 이 작품은 한정된 시간만 물건을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설정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은 원래부터 누군가에게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더불어 진정한 사랑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남자가 읽는 이야기책의 내용이 극 중 현실로 바뀌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등 실험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관객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특징: • 별다른 무대 장치가 없음

• 관객을 극 중으로 끌어들이

전체 줄거리:

발단	가난한 사기꾼인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물건들을 빌린 후, 맞선을 보기로 한 여자를 기다림	소목
전개	초조한 기다림 끝에 여자를 만난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소유의 본질을 깨달음	
절정	제한된 시간이 되어 하인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하나씩 빼앗아 가자 여자는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함	
하강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사랑을 받아 줄 것을 설득함	소목
대단원	여자가 남자에 설득당해 청혼을 수락하고, 함께 결혼을 하러 감	

1 ㉠은 남자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저택에서 나가지 않자, 하인이 남자를 쫓아내기 위해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장면에서는 남자와 하인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극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발자국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는 것은 적절한 연출가의 지시 사항이다.

오답 풀이 1 ㉡: 하인은 시간에 맞게 남자가 빌렸던 것을 되돌려 받는 역할만 하면 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하인이 초조한 심리를 지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오 분이 지났다는 하인의 동작 때문에 남자가 초조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 하인은 남자에게 책을 빼앗아 버리고 남자가 이를 항의하려 하자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일 뿐이므로, 하인이 남자에게 충직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는 지시문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해 달라는 지시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5 ㉤: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말에 여자가 설득을 당해 남자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므로, 애잔한 음악을 삽입하여 극의 슬픈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해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는 남자와 갈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남자와 하인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해소되지는 않는다. 여자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므로, 이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기만 할 뿐이다.

오답 풀이 1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쳅습니다.'라는 남자의 대사를 통해 제시된다.

2 하인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퇴장을 한다. 이 때문에 남자는 하인이 등장할 때마다 초조함을 느낀다.

3 물건을 가지고 나간 하인이 물건을 두고 잠시 후 되돌아오는 것으로 보아, 무대 밖에 또 다른 공간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남자가 관객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객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통해, 남자가 관객들을 극중 사건 진행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 두기

'하인'의 역할

하인은 빌린 시간이 다 되면 남자에게서 물건들을 하나씩 회수해 감으로써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여자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하인은 인간이 소유한 물건들은 사용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소유물은 빌린 것과 같다는 물질적 소유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객의 극 중 참여와 그 효과

남자는 관객 앞에 앉아 담배를 권하며 말을 하거나 넥타이를 빌리면서 관객을 극 중의 상황으로 끌어들이 관객도 극 중의 한 인물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극에 대한 관객의 집중력을 높이고, 관객이 연극에 참여하여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가치관과 정서를 드러내며 극적 리듬을 조절한다. 또한 관객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인식하게 한다.

III 실전

실전 01 현대 시

본문 070~071쪽

1 ① 2 ④ 3 ②

가 그날이 오면 _심훈

해제: 이 작품은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조국 광복에 대한 화자의 강렬한 염원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가 기다리는 '그날'은 조국 광복의 날로, 화자는 그날이 와 주기만 한다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으로 북을 만들어 행렬에 앞장서겠다고 하며 자기희생적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이렇게 조국 광복의 기쁨과 환희를 극한적 표현과 격정적 어조로 나타내어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조국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

특징: • 극한적 표현과 격정적 어조로 자기희생의 의지를 강렬하게 표현함
• 경어체의 종결 어미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함

구성:

1연	조국 광복에 대한 가정과 기쁨
2연	조국 광복에 대한 강한 염원과 의지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그날이 왔을 때의 화자의 행동	자기희생적 태도를 통해 조국 광복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간절하게 드러냄
•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울림 •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어 들쳐 메고는 행렬에 앞장을 섬	→

나 교목 _이육사

해제: 이 작품은 '교목'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가혹한 시대를 견디어 내고자 하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에서 '교목'은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 있고, 낮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있으면서도 뉘우침 없고,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 바람도 흔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에서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교목'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혹독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특징: •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냄
• 부정적 명령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구성:

1연	현실의 시련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2연	뉘우침 없는 삶의 결의
3연	죽음도 불사하는 강인한 의지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교목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기상과 단호한 의지를 드러냄
•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 있음 • 낮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있음 •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 있음	→

1 표현상의 특징

(가)에서는 '그날이 오면'과 '그날이 와서'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반복적인 표현을 찾아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나)는 각 연을 3행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형식미를 드러내고 있고, (가) 역시 각 연을 8행으로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다.

③ (가)는 조국이 광복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무슨 한이 남으리까'라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울리오리다', '남으리까'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 '푸른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로 (가)의 화자가 오기를 갈망하는 '그날'과 그 의미가 대응한다. (가)의 '춤'은 광복을 맞이한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온 것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의 '밤하늘'은 어두운 시대 상황을 의미하므로 ㉠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의 '까마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을 위한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삼각산'과 '한강 물'은 우리 영토의 일부분으로 우리나라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북'은 조국 광복의 기쁨을 널리 알리는 소재로, 화자는 기쁨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북'을 만들기 이전에 광복에 대한 기쁨을 먼저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화자가 차라리 피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꽃'은 우리 민족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푸른 하늘에 달을 뜻이 '우뚝 남아 서' 있는 교목의 상상의 이미지를 통해 변함 없이 이상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③ '낮은 거미집'은 교목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므로 공평하고 엄정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있는 교목은 죽을지언정 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내므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시인의 삶과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에서는 '차마'라는 부사어와 '못해라'라는 부정어의 호응을 통해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강인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실전 02 현대 시

본문 072~073쪽

1 ⑤ 2 ③ 3 ⑤

가 파발가에서 김수영

해제: 파가 오래되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새롭게 푸른 색이 돌아나면 이내 파발은 푸른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지난 사랑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붉은 파가 자신의 몸을 잃음으로써 푸른 새싹을 만들어 내듯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잃어야 한다는 삶의 진리, 즉 새로운 사랑을 얻으려면 고루한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이를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매 연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의 주제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주제: 새로운 사랑을 향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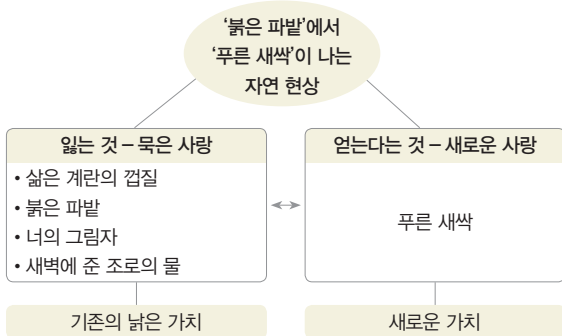
특징: •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함

• 비유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구성:

1연	묵은 사랑을 벗겨 내려는 마음
2연	묵은 사랑을 떨쳐 내려는 의지
3연	묵은 사랑에 대한 뉘우침과 극복 의지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나 전라도 가시내 이운악

해제: 이 시는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가 북간도 어느 주막에서 만나 느낀 동질감과 연민의 정을 이야기시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함경도와 전라도로 설정된 두 인물의 고향을 통해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유랑의 아픔을 엿볼 수 있으며, 다양한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여 북간도 이주민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전라도 가시내’의 직접적인 발화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자는 자신을 ‘나’, ‘전라도 가시내’를 ‘너’라고 지칭하며 자신과 같이 고달픈 삶의 이력을 가진 ‘전라도 가시내’의 사연에 공감하고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다.

주제: 북간도를 떠도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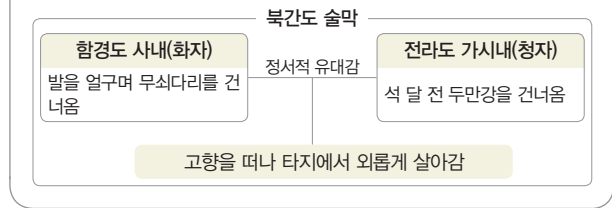
특징: • 구체적인 화자와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구성:

1연	전라도 가시내와 함경도 사내의 만남
2연	홍홍한 북간도 술막의 분위기
3연	전라도 가시내를 위로하고자 하는 사내
4연	고향을 떠난 전라도 가시내의 사연
5연	전라도 가시내의 슬픔에 대한 사내의 위로
6연	새벽길을 떠나야 하는 사내의 운명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표현상의 특징

(가)에서는 ‘보아라’와 같은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랑으로 묵은 사랑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도 ‘잠귀다오’, ‘돌아가거라’와 같은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고향을 떠나 유랑을 하고 있는 전라도 가시내를 위로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시내야 / 나는 발을 얼구며 /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나)에서는 구체적인 화자와 청자가 설정되어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붉은 파발’과 ‘푸른 새싹’의 색채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색채 대비가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는 묵은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함경도’, ‘북간도’, ‘전라도’와 같은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가 오래되면 붉은색을 띠는데 새롭게 푸른 새싹이 돌아나기 시작하면 파발은 이내 생명력이 가득한 푸른색으로 바뀌게 된다. (가)의 화자는 붉은 파발을 묵은 사랑으로, 푸른 새싹을 새로운 사랑으로 비유하여,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② 담담한 어조란 차분하고 평온한 말투를 말하는데 (가)의 각 연의 앞부분에서는 담담한 어조가 드러나지만 명령형의 말투가 사용된 각 연의 뒷부분은 담담한 어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화자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④ (가)의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은 묵은 사랑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얻는 것이다. 화자는 이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잃어야 하는 것도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가 새로운 사랑을 얻는 것은 화자 내면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가)에서 이를 방해하는 외부 세력은 찾아볼 수 없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의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는 고향을 떠나 타지를 유랑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다. 둘은 북간도 술막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위안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 연에서 함경도 사내는 홀로 새벽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1연에서 전라도 가시내의 외양을 묘사한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의 시구는 전라도 가시내가 살았던 고향의 이미지를 끌어다 표현한 것이다. 이 시어들 이 갖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라도 가시내의 고향이 전라도에 있는 어느 바닷 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나)의 1연을 통해 함경도 사내가 무쇠다리(두만강 철교)를 건너온 인물임을, 4연을 통해 전라도 가시내가 세 달 전에 두만강을 건너온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모두 고향을 떠나 북간도로 이주한 처지임을 의미한다.

③ (나)의 화자는 '북간도 술막'에서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덥다고 하며 흥흥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④ (나)의 전라도 가시내는 가슴에 '그늘진 숲속을 거어간 오솔길'을 간직한 인물이다. 이는 그녀가 힘겹게 살아왔으며, 이로 인한 가슴의 상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 두기

이야기 형식의 시

소설처럼 일정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서술이 아니라 운율을 살린 함축적인 언어로서 제시한 시를 말한다. 이때 연과 행의 구분이 있더라도 인물, 사건, 배경의 요소가 드러나면서 인과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 이어진다면 이야기 형식의 시로 볼 수 있다.

실전 03 현대 시

본문 074~075쪽

1 ④ 2 ③ 3 ③

가 낙타 신경림

해제: 이 시는 아무런 욕심 없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낙타를 동경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현재 슬픔과 아픔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인 낙타를 '어리석은 사람', '가엾은 사람'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초월적, 이상적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자연의 순리대로 무욕의 삶을 사는 낙타를 보며 자신도 낙타와 같이 세상사를 초월하여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초월과 달관의 삶을 추구하는 자세

특징: • 반어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함
• 구체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나타냄

구성:

1~6행	저승길의 동반자로서의 낙타
7~15행	이상적 존재로서의 낙타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화자	동경, 동일시	낙타
		• 세상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초월적 존재 •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가엾다고 여기나, 화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나 흠을 만지며 조지훈

해제: 이 시는 이해관계에 얽힌 현실에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삶을 벗어나 전원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현실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지만 갈등과 경쟁, 다툼이 있는 피비린내 나는 곳이다.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사랑과 정신적 풍요가 있는, 흠냄새 나는 전원에서 초가삼간을 짓고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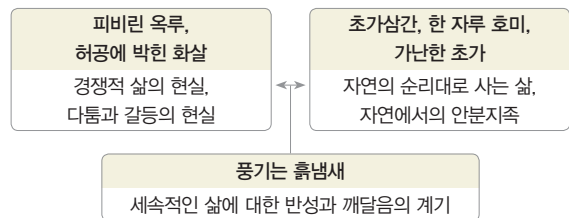
주제: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소망과 의지

특징: • 대조적인 시어와 시구를 사용함
• 자신에게 청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망을 강조함

구성:

1연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마음
2연	세속적인 삶의 외로움
3연	세속적인 가치의 거부
4연	자연에서 깨달은 삶의 원리
5연	자연의 섭리에 대한 순응
6연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삶
7연	전원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여유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표현상의 특징

(가)는 '낙타'라는 구체적인 동물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초가삼간', '한 자루 호미', '가난한 초가'와 같이 전원에서의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어리석은 사람', '가엾은 사람'은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존재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나)에서는 '초가삼간을 나는 짓자', '한 자루 호미를 버루어 보자', '한 그루 나무를 나는 심자' 등에서 문법적으로 '나'에는 쓸 수 없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전원에서 살아가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가)에는 청유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③ (가)는 첫 행 등 시 전체에 도치가 나타나고, (나) 역시 1연과 6연에 도치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⑤ (가)에서는 저승과 이승이라는 대조적인 세계가 나타나지만 이를 유사한 시구의 변용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나)에서 2연과 7연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변용하여 속세와 자연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가)의 '별과 달과 해와 / 모래밭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통해 ㉠ '낙타'가 세속적 욕심이 없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를 통해 화자가 이러한 '낙타'의 삶의 모습을 동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를 통해서 낙타가 세상사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존재라는 것은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② 낙타는 세상사의 고뇌를 잊고 자연 속에서 소리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④ 화자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낙타가 되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낙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세상 사람들은 자연만 바라보며 살고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여 재미없는 삶을 사는 낙타를 가장 어리석고 가여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허공에 박힌 화살’은 ‘한 자루 호미’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구로, 세속적 현실 세계의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화자가 추구하는 전원 속에서의 삶과 대조된다.

- 오답 풀이 ① ‘피비린 옥루(玉樓)’는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세속적 욕망의 산물이다.
- ②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은 물질적 풍요를 지닌 세속적 삶의 공간으로, 화자에게 외로움을 안겨 주는 공간이다.
- ④ ‘풍기는 흙냄새’는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 즉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속세에서 욕망에 젖어 살아온 화자에게 뉘우침을 이끌어 내어, 화자가 전원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⑤ ‘가난한 초가’는 화자가 원하는 삶으로,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여 여유롭게 사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나 세한도 _정호승

해제: 이 시는 실종된 아버지에 대한 부재감과 안타까운 심정을 벽에 걸린 「세한도」의 춥고 쓸쓸한 풍경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헤맨 후 돌아와 아버지의 텅 빈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식의 모습에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농사일로 평생을 보낸 아버지가 이제는 밭볼일 곳 없어진 세상을 보며 화자는 ‘바람은 차고 달은 춥다’라고 하고, 그렇게 추운 세한의 세상에 날아와 앉은 ‘새 한 마리’에서 세한 속에 떠돌고 있을지 모를 아버지를 떠올린다.

주제: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해 느끼는 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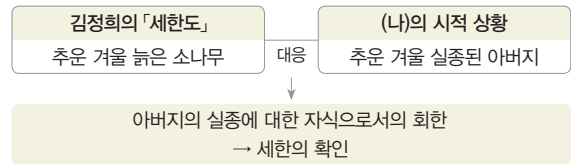
특징: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함

구성:

1~8행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한 자식의 회한

9~14행 아버지의 부재에서 느끼는 세한의 추위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표현상의 특징

(가)에서는 ‘따스다’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세한을 이겨 낸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춥다’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명사 혹은 말줄임표로 시행을 끝맺는 등 생략과 압축적 표현이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가)와 (나) 모두 과거 회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아버지의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제시되는데 이것이 과거 회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의 공간은 「세한도」라는 그림 속이므로 현실적인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없다. (나)에서만 현실적인 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유사한 시행의 반복이 드러나지만,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의 지조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의 「세한도」는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적 세상과 주제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나)에서 화자는 방에 걸려 있는 「세한도」의 소나무를 보고,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슬픔, 후회, 절망감 등의 감정을 환기하고 있다.
- ③ (가)는 시인이 상상력으로 그림 「세한도」의 여백에 ‘까치 한 쌍’과 ‘까치집 하나’를 더해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나)는 그림의 여백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 ④ (나)는 그림 속 겨울의 냉혹한 이미지처럼 아버지가 헤매고 있을 춥고 혹독한 세상을 세한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에서는 ‘까치 한 쌍’과 ‘까치집 하나’가, (나)에서는 ‘새 한 마리’가 그림에 추가되고 있다.

시전 04 현대 시

본문 076~077쪽

1 ④ 2 ① 3 ③

가 세한도 _송수권

해제: 이 시는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에 시인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시적 의미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그림의 빈 공간에 ‘까치 한 쌍’과 ‘까치집 하나’를 새로 그려 넣고 이승에서, 그리고 저승에서 폭발하는 울음을 여백에 담아내고 있다. 이때 ‘울음’은 삶과 죽음의 세계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두 세계를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이로써 삶과 죽음의 세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세한의 극복을 노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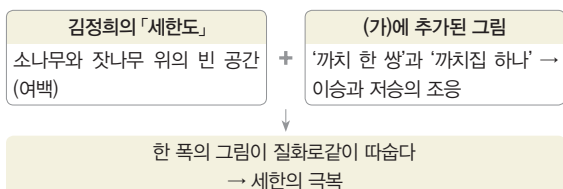
주제: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통한 세한의 극복

특징: 생략과 압축을 통해 시적 여운을 줌

구성:

1연	생명이 폭발하는 세한도
2연	죽음의 세계로 이어진 세한도
3연	삶과 죽음이 조응하는 세한의 세계에서 느끼는 따뜻함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2연의 ‘까치집 하나’는 ‘빈 공간’, ‘고목나무’, ‘먼 저승의 하늘’ 등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죽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까치집 하나’는 화자의 내적 고뇌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② 1연은 이승의 세계를, 2연은 저승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④ 1연과 2연의 ‘울음’은 삶과 죽음의 세계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이므로, 삶과 죽음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세한의 추위를 질화로 같은 ‘따뜻함’으로 극복하고 있다.

실전 05 고전 시가

본문 078~079쪽

1 ② 2 ② 3 ②

가 동동 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각 달의 세시 풍속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노래한 월령체 형식의 고려 가요이다. 임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서사를 포함하여 총 13연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한 해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각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을 드러내면서 주로 임을 떠나보낸 여인의 원망, 한스러움, 그리움 등과 같은 애절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시상이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각 연의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까닭은 이 작품이 원래 연가(戀歌)적 성격의 민요였으나, 조선 시대에 궁중으로 흘러 들어가 궁중 연악(宴樂)으로 쓰이면서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제: 임에 대한 송도(頌謫)와 연모(戀慕)의 정

- 특징: • 일 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구성한 월령체 노래임
 • 임과 화자를 다양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함

구성:

정월령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이월령	임의 높은 인품 찬양
삼월령	임의 아름다움 찬양
사월령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오월령	임의 만수무강 기원
유월령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화자	임
벼랑에 버린 빗	높이 켜 등불, 진달래꽃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임	훌륭한 인품에 출중한 외모를 지님

나 규원가 _허난설헌

해제: 이 작품은 봉건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 때문에 조선 시대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한과 외로움을 섬세하게 그린 규방 가사이다. 이 작품의 작자인 허난설헌은 실제로 무능한 남편과 결혼하여 독수공방하며 살았는데, 가사에는 그러한 그녀의 애달픈 삶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 속절없이 늙어 가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홀로 규방을 지켜야 하는 외로움, 그러면서도 지울 수 없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감정 이입과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은 것

은 이 작품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사대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를 여성으로까지 확대시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도록 한 것은 이 작품이 지닌 의의이다.

주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한스러운 삶

- 특징: •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냄
 •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구성:

기	과거 회상과 늙음에 대한 한탄
승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쓸쓸한 심정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화자	남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독수공방함	소식도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음

-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고 체념함
 •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함

1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가)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도 소식을 알 수 없는 남편을 정처 없이 나가 기다리며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만 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임에게 버림받은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⑤ (가)의 화자가 임을 예찬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나)의 화자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의 ‘피꼬리 새’는 화자를 찾지 않는 녹사님과 달리 사월이던 잊지 않고 화자를 찾아오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피꼬리 새’는 녹사님과 대비되는 대상일 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만인(滿人) 비추실 모습이기도다.’를 통해 ㉠ ‘높이 켜 등불’이 임의 훌륭한 인품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천 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를 통해 ㉡ ‘약’이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 ‘진눈깨비’는 독수공방을 하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이 화자의 심리와 관련된 객관적 상관물임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 ‘식솔’의 울음소리를 듣고 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슬픔이 이입되어 있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는 늙어 못생겨진 얼굴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늙음에 대한 화자의 한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 있다.

- 오답 풀이** ① ‘엇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거니’는 젊고 행복했던 과거와 늙어버린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다.
 ③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랴’는 스스로의 잘못이니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화자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여 체념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 없이 나가 있어'는 정처 없이 나가 임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는 가을밤 귀뚜라미가 우니 한숨과 눈물만 나온다는 뜻으로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낸다.

알아 두기

허난설헌

조선 중기의 시인(1563~1589)으로 천재적인 시재(詩才)를 발휘하였으며, 특히 한시에 능하였다.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오빠 봉과 동생 균 틈에서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고 문학적 자질이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15세 무렵에 김성립과 혼인했으나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지 못했고, 아이를 유산하고 친정에서 옥사를 겪는 등 연속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책과 한시로 슬픔을 달래며 불우하게 살다 27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시에 「유선시(遊仙詩)」, 가사에 「규원가」, 「봉선화가」 등이 있다.

실전 06 고전 시가

본문 080~081쪽

1 ③ 2 ③ 3 ⑤

면양정가 _송순

해제: 이 작품은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에 몰입하여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풍류적 모습을 형상화한 가사이다. 이 작품은 경치를 먼저 내세운 뒤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변화에 따라 실감나게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풍류 생활의 즐거움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노래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역균은(亦君恩)이시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속에 있어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충(忠)을 내세우는 사대부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나타내며 조선 시대 강호가도의 전형을 확립했다. 이 작품은 강호가도의 시조인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이어받은 자연 친화 사상에 유교적 충의 이념을 결합하여 강호가도를 확립한 후, 이후 정철의 「산상별곡」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말의 맛을 살리고 반복, 점층, 대구법과 같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실감나게 묘사하여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면양정에서 느끼는 자연의 정취와 연군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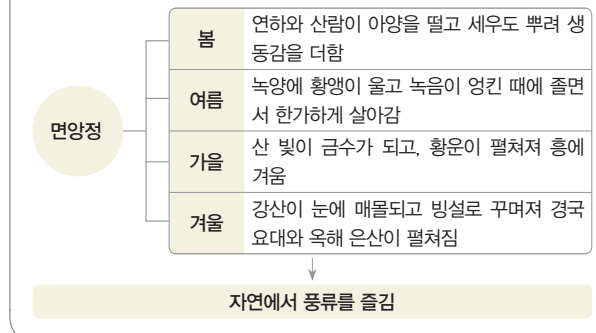
특징: •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의인법, 열거법, 대구법, 반복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을 생동감 있게 나타냄

구성:

본사 2-①	면양정의 봄 경치
본사 2-②	면양정의 여름 경치
본사 2-③	면양정의 가을 경치
본사 2-④	면양정의 겨울 경치
결사 1	자연에서의 풍류 생활
결사 2	자연에서의 취흥
결사 3	자연에서의 호랑 정회
결사 4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에서 화자는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겨를이 없을 만큼 자연에서 분주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현재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단풍을 금수 즉, 수를 놓은 비단에 비유하여 아름다운 가을의 경치를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눈에 매몰되었다고 하며,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는 이 산 저 산을 옮겨 다니며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것 또한 임금의 은혜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2 표현상의 특징

[A]에서 화자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면양정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있으나,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면서 들면서', '오르거니 내리거니', '푸르다가 붉다가 열다가 질다가' 등에서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연하'와 '산람' 등이 아양을 떨고 있다는 표현 등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그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면서 들면서', '오르거니 내리거니' 등에서 대비되는 행위를 나열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흰 구름 뿌연 연하 푸른 것은 산람이라', '푸르다가 붉다가 열다가 질다가' 등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B]의 화자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 나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자신이 이미 한 행위를 나열하며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B]와 <보기> 모두 대화 형식이 아니라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B]와 <보기> 모두 특정 공간, 즉 자연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③ <보기>에서는 '보리밭', '모재' 등을 제시하여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B]에서도 '바람', '달', '밤', '고기'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④ [B]와 <보기>의 화자 모두 현실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1 ⑤ 2 ⑤ 3 ④

어부단가 _이현보

해제: 고려 때부터 12장의 장가와 10장의 단가로 전해져 내려 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개작하여 9장의 장가와 5장의 단가로 만들었는데, 이 중 장가 「어부가」와 구분하여 「어부단가」라고 부른 작품이다.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총 5수의 연시조로, 어부 생활의 흥취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후 전래되던 「어부가」의 매력에 사로잡혀 노랫말의 순서와 내용을 바로잡고 다듬은 것으로, 속세를 벗어나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작가의 소망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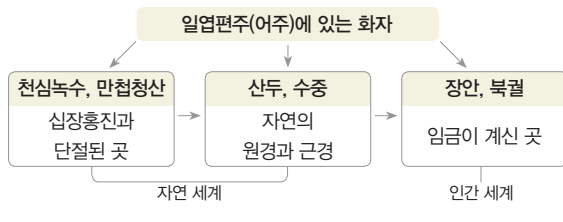
주제: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생활

- 특징:
-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상투적인 한자어를 사용하여 정경을 묘사함
 - 대구적 표현으로 운율감을 살림

구성:

1수	속세를 잊고 사는 어부의 즐거움
2수	자연에서의 무심한 생활
3수	자연의 참된 의미
4수	자연 속에서의 흥취
5수	제세현의 출현을 바램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표현상의 특징

제1수에서는 인간 세상을 다 잊고 있음을, 제2수에서는 강호에서의 무심한 삶을, 제3수에서는 자연의 참된 의미를, 제4수에서는 자연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제5수에서는 여전히 임금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삶이 각 수마다 강조되고는 있지만 특정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제수의 종장에서는 '날 가는 줄을 알랴'라고 하며 어부 생활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고, 제5수의 종장과 종장에서는 '잊은 때가 있으랴', '제세현이 없으랴'라고 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는 천 길 깊이의 푸른 물인 '천심녹수'와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인 '만첩청산'이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인 '십장홍진'을 가리고 있다고 하고 있다. 즉,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자연과 속세라는 공간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 화자는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물고기를 꿰어 먹는다고 하고 있다. 연잎과 버들가지의 푸른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탈속의 공간인 자연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화자의 시선은 산봉우리의 한가로운 구름이 이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물 위의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화자는 현재 배 위에 있으므로 시선은 먼 곳(원경)에서 가까운 곳(근경)으로 이동한 것이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제5수에서 화자는 서울 쪽을 바라보며 임금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고 있으면서도, '제세현'이 없겠느냐며 자신의 시름이 아니니 '두어라'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세현'을 화자 자신으로 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어부'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삶을 사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이 어부의 삶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
 - ② '십장홍진'은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속세를 의미한다. 화자는 속세와 단절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기>에서 작품 속 화자가 주로 속세를 멀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과 연결된다.
 - ③ '일반청의미'는 자연의 참된 의미라는 뜻으로, 어부 생활의 자부심이 드러난 표현이다. <보기>에서 어부가 이상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라는 점과 연결된다.
 - ④ '북궐'은 임금이 있는 궁궐로 화자는 이를 생각하며 속세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보기>에서 간혹 속세를 향한 화자의 고뇌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알아 두기

어부의 생활을 읊는 문학적 전통

어부가(작자 미상) → 어부단가(이현보) → 어부사시사(윤선도)

여름과 후렴이 붙어 있는 연장체 형식으로 고려 가요와 유사성이 있는 장가 「어부가」는 이현보가 시조 형식의 「어부단가」로 개작하였는데, 여기에서 전통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내용 면에서도 강호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을 읊는 문학적 전통이 이현보의 「어부단가」를 거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화자는 제4수에서 산두의 한운과 수중의 백구를 다정한 것이라며 이들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므로 한운과 백구는 화자가 시름을 잊고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겠다는 몰아일체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 오답 풀이**
- ① ㉠ '일엽편주(一葉扁舟)'는 한 척의 조그마한 배라는 의미로 현재 화자가 있는 장소를 의미할 뿐, 화자가 이 배를 타고 서울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 '강호(江湖)'는 자연, 즉 탈속적 공간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미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강호'는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 '노적화총(蘆荻花叢)'은 갈대와 물억새의 꽃떨기를 이르는데, 화자는 이것에 배를 묶어 두고 연잎에 싹 밥과 버들가지에 꿰 물고기를 먹고 있다. 따라서 '노적화총'은 화자가 있는 공간의 일부를 표현한 것일 뿐, 달관의 경지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⑤ ㉤ '시름'은 임금에 대한 걱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스스로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강호에 온 것이므로 임금에게 돌아갈 수 없음을 걱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① 2 ④ 3 ①

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_왕방언

해제: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뒤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단시조이다. 현재 임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화자는 냇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시냇물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이입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자가 수양 대군에 의해 왕위가 찬탈된 단종을 영월의 유배지까지 호송했다가 돌아오면서 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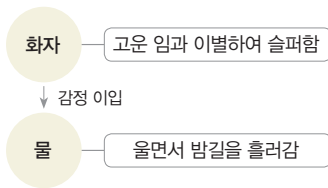
주제: 임과 이별한 뒤의 슬픔

특징: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이별로 인한 슬픔을 수량화된 표현으로 나타냄

구성:

초장	고운 임과 여별함
중장	마음 둘 곳이 없어 냇가에 앉음
종장	물이 울면서 흘러간다고 느낌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나 뫏버들 가려 꺾어~ _홍량

해제: 이 작품은 '뫏버들'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조이다. 화자는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뫏버들'을 임에게 보내면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디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과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구사하였으며, 뫏버들에서 새잎이 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한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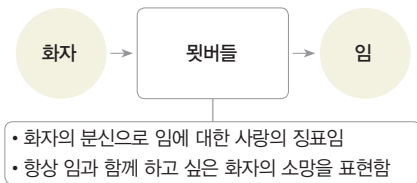
주제: 임에게 보내는 사랑

특징: • 임에 대한 사랑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냄
• 상징과 도치법을 사용하여 섬세한 여성적 정서를 다 표현함

구성:

초장	뫏버들을 꺾어 임에게 보냄
중장	뫏버들을 창밖에 심어 두고 보라고 함
종장	밤비에 새잎 나면 '나'라고 여기라고 함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다 어이 못 오던가~ 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중장에서는 열거법, 연쇄법, 점강법, 과장법을 사용하여 임이 오지 못하는 까닭을 묻고 종장에서는 한 달 중에 단 하루도 시간을 낼 수 없느냐고 임을 책망하면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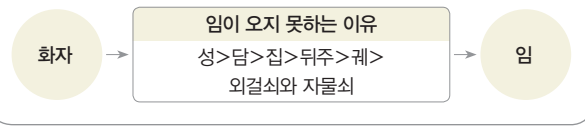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특징: • 열거법, 연쇄법, 점강법, 과장법을 사용하여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구성:

초장	임이 오지 못하는 까닭을 물음
중장	임이 오는 길에 장애물이 많아 못 오냐고 물음
종장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함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흘러가는 '물'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하고 있다. 이는 '물'에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나)의 화자는 이별한 임에게 '뫏버들'을 보내면서 새잎이 나거든 자신으로 여기라고 하고 있다. 이는 '뫏버들'에 화자의 분신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다)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찾을 수 없다.

③ (다)의 화자는 '한 달이 서른 날이거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라고 하며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④ (가)~(다)의 화자는 모두 임과 이별한 후의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다)의 화자 모두 절대자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나)의 '보내노라'는 화자가 행한 행동이지만, '심어 두고'는 화자가 '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보내노라'와 '심어 두고'가 모두 화자가 행한 행동이라고 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천만리 머나먼 길'은 임과 화자 사이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드러낸다.

② (가)의 '내 마음 둘 데 없애는 임과 이별한 상황, 즉 '고운 님 여의옵고'에서 비롯된 정서라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임을 여의고 냇가에 앉아 흘러가는 물에 자신의 슬픈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따라서 '밤길 가는구나'는 '울어'와 연결되어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답답하고 슬픈 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새잎'은 화자가 '님'에게 자신인가 여기라는 것이므로, '님'이 화자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표현상의 특징

(다)의 초장에서는 '못 오던가'를 반복하여 이별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ㄱ). 그리고 중장에서는 '성', '담', '집', '뒤주', '궤', '쌍배목 외결쇠', '용 거북 자물쇠'와 같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관련이 있는 시어를 범위를 점점 좁혀가면서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ㄴ, ㄷ).

오답 풀이 ㄴ. (다)의 중장에서는 명령형이 아닌 의문형으로 문장을 종결하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강조하고 있다.

ㄷ. (다)의 종장에서는 '서른 날'과 '하루'를 대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태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1 ④ 2 ③ 3 ②

레디메이드 인생_채만식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지식인의 비애와 좌절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1930년대 일제의 문화 정책으로 조성된 교육열로 과잉 공급된 지식인들은 세계적인 경제 공황까지 일어나자 아무 쓸모없는 고등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가난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P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층으로, 자신의 지적 수준에 걸맞은 직업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현실에 P는 그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 때문에 그는 식민지 교육 정책이 지식층을 실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팔려 나가 기만을 기다리는 기성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사회의 잉여 인력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P라는 인물을 통해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비애와 자조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P가 어린 아들인 창선이를 인쇄소에 취직시키고 돌아오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일제 강점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풍자와 무능한 지식인에 대한 비판 의식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소외된 지식인의 무능함과 당시 사회의 지식인 양산 체제에 대한 비판

특징: • 냉소적이고 비꼬는 듯한 어조를 통해 풍자 효과를 높임
• 판소리 사설의 편집자적 논평처럼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논평을 함

전체 줄거리:

발단	P는 동경 유학까지 마쳤으나 번번이 구직에 실패하고, 신문사에 취직하기 위해 K 사장을 찾아가나 거절당함
전개	P는 자신이 인텔리인 것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과 같은 지식인 실업자를 양산해 낸 사회에 분노하기도 함
위기	P와 M은 H를 졸라 그의 법률 책을 전당포에 잡혀 돈 육 원을 만들고, 술집을 전전하다 집으로 돌아옴
절정	P에게 아홉 살짜리 아들 창선이를 올려 보낼 테니 아비 구실을 하고 기르라는 내용의 편지가 고향의 형으로부터 오
결말	P는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인텔리 실직자로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아들을 인쇄소 무료 견습공으로 맡기고 돌아옴

수독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P	
• 식민지 지식인이자 고등 실업자의 전형 • 레디메이드 인생	아홉 살인 어린 아들을 학교 대신 인쇄소에 무료 견습공으로 취직시킴
↓	↓
고등 교육을 받아도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여 줌	시대적 현실에 대한 자조와 소극적 저항을 보여 줌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물들의 내면 서술은 제한되고, 주인공인 P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P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지만, 아들 창선이에 대한 P의 행동이 중심이 될 뿐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P의 내면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배경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고등 교육을 받고도 취업하기가 힘든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P가 겪는 갈등, 즉 사회와 인물의 갈등이 주가 되며 인물 사이의 대결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P가 겪는 고뇌와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단일한 사건이 전개될 뿐 여러 사건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고 있지는 않다.

2 소재의 의미와 기능

‘화룻밥’은 창선이와의 만남을 앞둔 P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고자 지은 것으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정성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편지’는 아들 창선이가 상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P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② ‘육 원’은 P가 주인 노인에게 내어 준 돈으로, 돈을 받아마자 주인 노인은 김치를 담가 주고 깎두기에 간장, 된장까지 주며 호의적으로 태도가 바뀐다.

④ ‘양복’은 ‘갈린 아내’의 집에서 창선이에게 해 준 것으로, 아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P는 아들이 입고 있는 양복도 벗겨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따라서 ‘양복’은 처가와 아내에 대한 P의 불쾌한 감정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⑤ ‘x×인쇄소’는 경제적 곤란에 처한 P가 어린 아들을 노동자로 취직시키는 곳으로, 아버지로서 P의 무능력함이 부각되는 장소이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은 문선과장이 어린 자식을 데려와 공장에 취직시키려는 P에게 아이에 대해 알기 위해 묻는 질문이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x× 인쇄소의 문선과장은 자식을 당연히 공부시켜 지식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지식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는 노동자와 달리 인텔리로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나타나 있다.

③ ㉢은 지식인인 자신은 자식을 공부시킬 능력이 없으며, 이처럼 학교를 졸업하여 지식인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지식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제구실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④ ㉣은 어린 자식을 공장 노동자로 취직시키는 것이 애처롭기는 하지만 지식인으로서 사는 삶보다 노동자로서 사는 삶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한 말로, 고등 교육을 받아도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의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본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에는 인간을 대량 생산되어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기성품처럼 여기는 현실과 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지식인의 자조가 나타난다.

알아 두기

1930년대 지식인의 삶

1930년대는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몰아닥친 시대였다. 특히 한반도는 근대화 과정과 일제 강점이라는 상황이 맞물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으며, 대량 실업의 사태를 맞이해야 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점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지식인들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쓸모없는 실업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1 ④ 2 ④ 3 ⑤ 4 ①

우황청심환 _박완서

해제: 이 작품은 19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민족 분단 문제와 당시 사회 내부의 이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우황청심환을 팔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연변 친척 때문에 남궁 씨와 그의 아내가 갈등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작품의 끝부분에서는 남궁 씨와 아내의 갈등이 운동권인 둘째 아들과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 작품은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적 문제가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나타냄으로써 그 둘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민족적, 사회적 문제와 화합을 통한 해결

특징: •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으로 사실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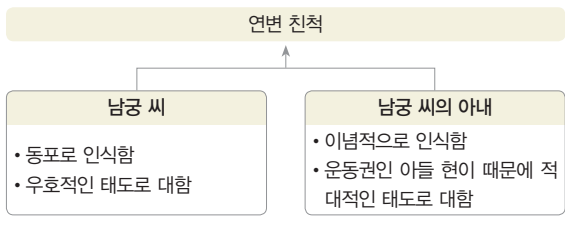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다룸

전체 줄거리:

발단	남궁 씨는 죽은 친구의 회사를 맡아 크게 키워 놓지만, 친구의 아들이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퇴직을 위한 위로 여행을 떠나게 됨
전개	남궁 씨는 약재를 팔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연변 친척의 부탁을 받고 젊은 사장을 찾아가 우황청심환을 비롯한 약재를 사 줄 것을 부탁함
위기	남궁 씨가 여러 차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연변 친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궁 씨는 계속해서 연변 친척을 도움
절정·결말	연변 친척이 돌아간 후 남궁 씨는 아내가 운동권인 둘째 아들 현이의 이야기를 하며 우는 것을 보고, 아내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아내를 이해하게 됨

수를

작품 한 번에 정리하기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주인공인 ‘남궁 씨’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서술하여 남궁 씨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궁 씨가 연변 친척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모습, 연변 친척이 돌아간 후 허전함과 막막함을 느끼는 모습 등을 통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내면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일관되게 서술되고 있으며,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② 이 글에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나란히 병치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인물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⑤ ‘그날 밤 잠자리에서였다.’에서 장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의 전환에 따라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으며, 긴박함 역시 느낄 수 없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연변 친척은 남궁 씨의 도움으로 가지고 온 약재를 충분히 팔았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궁 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에 의존을 하게 되는 마음)을 이야기하며 다소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연변 친척이 남궁 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그럴 때마다 아내는 눈에 쌍심지를 쏘고 그들의 공상에 욕지거리를 퍼붓곤 했다.’를 통해 아내는 남궁 씨가 연변 친척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남궁 씨는 이제부터 혼자 월로 소일을 하나, 끈 떨어진 뒤통박처럼 막막했다.’를 통해 회사 퇴직 후 일거리가 없는 남궁 씨가 연변 친척이 떠나자 그들의 빈 자리로 인해 허전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아들 또한 아버지하고는 한자리에서 입을 어울리기도 싫어했다. 부자지간은 점점 원수처럼 돼 갔고, 현이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때려치우고 노동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아주 집을 나가 버렸다.’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현이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아버지에 대해 반발심을 내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젊은 사장에게 꼴치 아픈 공로자를 몰인정하지 않게 제거하고 싶다는 야량이 있었다.’를 통해 젊은 사장은 남궁 씨가 부탁한 우황청심환, 녹용을 모두 사 줌으로써 회사를 키워 준 남궁 씨를 사장 자리에서 내몬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아내는 연변 친척을 통해 아들 현이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실상을 알고 이에 실망하여 오열하고 있고, 남궁 씨는 이러한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남궁 씨가 아내를 위로하는 장면은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 문제 해결의 선후 관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남궁 씨는 소년 시절에 겪었던 6·25 전쟁의 처참한 기억 때문에 운동권을 다 좌익으로 보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인물이다. 결국 6·25 전쟁의 처참한 기억은 학생 운동을 하는 아들 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과 갈등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보아 남궁 씨 역시 분단과 이념 갈등의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② 아들 현이와 아버지 남궁 씨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바꾸고자 하는 젊은 세대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 1980년대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남궁 씨는 자신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지덕지할 줄 모르는 연변 친척과 대화를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그들이 싫어지거나 미워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간의 소통으로 민족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연변 친척은 북한의 친척을 만나러 갔을 때 자신이 가지고 간 것을 모두 주고 왔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민족 화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4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의 ‘옷’은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얇은 초가를 옷을 입고 장사하는 연변 친척을 위해 남궁 씨가 가져다 준 것으로 연변 친척의 공상맞은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이다. 그리고 ㉡의 ‘옷’은 집을 나가 버린 현이가 가끔 집으로 가지러 오는 것으로, 현이의 안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 오답 풀이** ② 연변 친척이 한국에 온 이유는 약재들을 팔기 위한 것이므로 ㉠의 '웃'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현이가 집을 나간 이유는 남궁 씨와의 갈등 및 노동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기 위한 것이므로 ㉡의 '웃'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의 '웃'은 연변 친척과 아내의 관계를 짐작하게 소재가 아니고, ㉡의 '웃'도 남궁 씨와 아내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소재가 아니다.
- ④ ㉠의 '웃'은 남궁 씨가 얇은 옷을 입고 장사를 하는 연변 친척을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연변 친척에 대한 남궁 씨의 연민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 '웃'은 아내가 아들을 위해 챙겨 놓은 것이므로, 현이에 대한 아내의 분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⑤ 이 글을 통해 남궁 씨의 과거가 가난했는지, 아내의 과거가 화목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과 ㉡ 모두 인물들로 하여금 과거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아니다.

알아 두기

사회주의(社會主義)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공동체와 최대 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으로,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났다.

실전 11 현대 소설

본문 092~094쪽

1 ③ 2 ⑤ 3 ③ 4 ④

우리 동네 황 씨 이문구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와 농촌 공동체 의식의 붕괴 등 농촌의 현실적 문제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농민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황 씨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 농촌 공동체의 조화로운 모습이 해체되고, 농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민들끼리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현실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농촌 현실만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 씨를 배척하기보다는 황 씨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농촌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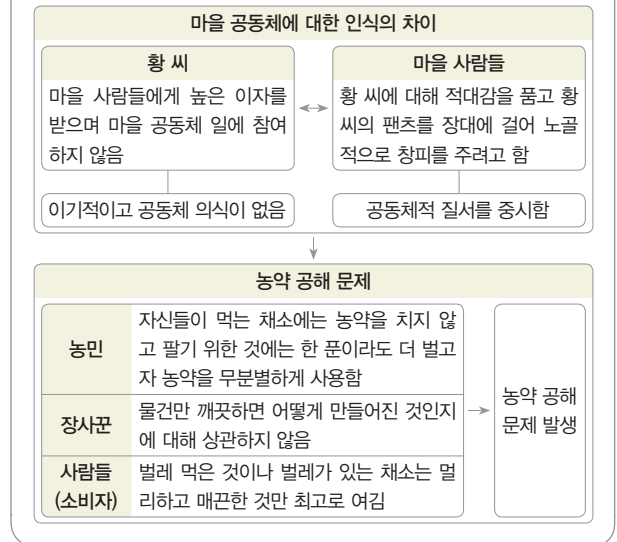
주제: 산업화로 인해 밀려난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삶의 실상

특징: •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임
• 장면의 전환을 통해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높임
전체 줄거리:

발단	김봉모는 TV 때문에 마실을 다니지 않는 농촌 현실에 아쉬워하던 차에 산업 계장이 왔다는 이장의 말을 듣고 산으로 가던 중 얼마 전 일을 떠올림
전개	얼마 전 수재민 의연금을 모으자는 마을 반상회가 열려 구호 물품으로 쌀 두 되, 돈으로 육백 원 이상 그리고 입던 옷가지, 장 따위를 얹어 내기로 결정함
위기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쌓은 황선주는 다른 집과 달리 쌀 가격을 들먹이며 성금으로 오백육십 원만 내고 구호물자로써는 자신이 입던 팬츠를 내놓음
절정	황 씨의 인색한 태도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홍사철의 제안에 따라 김봉모를 앞세워 황 씨가 내놓은 팬츠를 바지랑대에 걸어 마을 회관 앞에 세워 놓음
결말	마을 모임에서 황 씨는 수재 의연금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격분하지만, 이웃 간에 서로 보살피며 아끼자는 김봉모의 말로 술자리가 끝이 남

주목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서는 황 씨의 팬츠에 관한 마을 사람들의 대화 이후에 황 씨에게 벌을 주고 싶은 김 씨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고, 농약 고추에 관한 마을 사람들의 대화 이후에 농약을 사용한 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김 씨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황 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불만과 농약 공해 문제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극적인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이 글에 농촌과 도시의 대립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농민과 도시인의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④ 인물 간의 대화와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의 시각에서 등장인물을 바라볼 뿐 다수의 서술자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황 씨는 더 빨리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 이익을 얻기 위해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직접 구매해 먹는 실수요자들이 벌레가 먹지 않은 매끈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황 씨가 심각하게 많은 양을 뿌리는 것은 그의 성격으로 보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다.

- 오답 풀이** ① 최 씨는 황 씨의 팬츠를 걸자는 홍 씨의 의견에 기뻐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이는 최 씨 역시 이전부터 마을 공익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 씨를 벌려 왔기 때문이다.
- ② 홍 씨는 마을 초입 인근에 밭가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오가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황 씨가 낸 팬츠를 걸자고 제안하고 있다.
- ③ 이장은 황 씨의 팬츠를 걸어 두어 봤자, 황 씨가 제 것은 금테를 돌렸다고 하며 제 것이 아니라고 우길 작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 ④ 김 씨는 농산물에 농약을 퍼붓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실수요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3 소재의 의미와 기능

황 씨가 구호 물품으로 내놓은 팬츠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분개하고, 이를 계기로 뜻을 모아 황 씨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황 씨의 팬츠를 마을 초입에 걸어 놓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오답 풀이 ① 황 씨는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부를 축적한 대지주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자신의 현 팬츠를 내놓은 것이 아니다.

② 마을 사람들이 황 씨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 될 뿐, 마을 사람들이 이로 인해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농촌이 도시와 경제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은 도시 사람들의 수요와 취향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약을 많이 뿌리는 것과 관련되며, 황 씨의 팬츠와는 관련이 없다.

⑤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황 씨의 뒤편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입던 팬츠를 수채민 구호 물품으로 낸 것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마을 사람들이 황 씨의 팬츠를 마을 초입에 걸자고 하는 것을 이장이 탐탁지 않게 말한 것은 팬츠를 건다고 해도 황 씨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이장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황 씨나 김 씨를 비롯한 농민들이 이익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여 키운 수확물을 판매하는 모습은 1970년대 농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민들이 양심을 속이는 일로, 타락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② 농약의 과도한 사용은 농약 공해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물질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다.

⑤ 마을의 공동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황 씨를 비판함으로써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중요성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전 12 고전 서사

본문 095~097쪽

1 ③ 2 ② 3 ③

소대성전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대성이 신이한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웅·군담 소설이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를 취하면서도 이 승상의 집에서 지내던 소대성을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위인으로 그린 대목이 특이한데 이는 걸 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객을 죽이고 승상의 집을 가는 장면은 「홍길동전」과 유사한데 이는 이 작품의 당대 영웅·군담 소설의 모티프를 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서술된다는 것은 당시 영웅·군담 소설과는 차별된 지점이다.

주제: 고난을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 영웅의 활약상

특징: •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구조를 일부 변용하여 제시함
• 「홍길동전」과 「유충렬전」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함

전체 줄거리:

발단	명나라 때 병부상서를 지낸 소양이 술하에 자식이 없어서 청룡사 노승에게 황금 오백냥과 백금 일천냥을 시주하고 소대성(용왕의 아들이 인간계에 적강한 인물)을 얻음
전개	소대성의 나이 10세 때 부모를 모두 여의어 가산을 탕진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이 승상을 만나고, 소대성의 뒤편이를 알아본 이 승상은 소대성을 집으로 데려와 딸 채봉과 혼인을 시키려 함
위기	이 승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소대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왕 부인이 세 아들과 모략하여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하지만, 소대성은 자객을 죽이고 집을 나가 노승에게 병법과 무술을 배움
절정	전쟁에 나간 소대성은 도술로 적장을 죽이고 천자가 항복하려는 순간에 그를 구하는 공을 세워 노국의 왕으로 봉해짐
결말	소대성은 자신을 기다리던 채봉과 혼인하여 인연을 성취하고 노국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음

수록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영웅의 일대기 구조	「소대성전」의 내용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비범하게 태어남	본래 용왕의 아들이었으나, 비를 잘 못 내린 죄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남
어릴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임	도술을 부림
죽을 고비를 넘김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정처 없이 떠돌음
양육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남	이 승상을 만나 그의 집에서 살게 됨
커서 다시 고난을 겪음	이 승상이 죽고 난 후 왕 부인과 그녀의 세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함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됨	집을 나와 무술을 연마하여 위험에 처한 천자를 구하여 노국의 왕이 되고, 채봉을 만나 혼인함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서 소대성은 광풍으로 관이 벗겨지자 주역의 팔괘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괴이한 일을 미리 보고, 자객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기 전에 둔갑술을 부려 몸을 감추며, 자객이 갈침을 추며 다가오자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전기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특정 장면을 과장하여 묘사하는 '장면의 극대화' 기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회고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 글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이 승상의 집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이 승상의 세 아들은 소대성을 찾아 집을 떠나 줄 것을 돌려서 표현하지만 소대성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왕 부인과 의논을 한다. 이때 이 승상의 장자 태경이 '한데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자를 내치면 세간의 시비를 사게 되어 일이 난처해질까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를 통해 왕 부인과 세 아들이 소대성을 내치지 못하는 것은 채봉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❶ 이 글에서 소대성이 자신을 해치러 온 조영에게 '어리석은 놈아! 돈을 받았다고 몸을 돌보지 아니하니 어찌 가련하지 않겠느냐?'라고 호통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❸ 이 글에서 소대성이 이 승상의 세 아들을 보내고 나서 '주인이 객을 싫어하니, 나는 장차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라고 말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책을 놓고 멍하니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❹ 이 글에서 이 승상이 죽기 전에 왕 부인에게 '딸아이의 인륜대사를 내 뜻대로 꼭 치러 주오. 황천길을 떠나는 이 사람의 한이 없게 해 주오.'라고 말하는 것과 채봉에게 '내 너의 혼사를 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니, 그 한이 가슴에 맺히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❺ 이 글에서 왕 부인이 '소생의 거동이 아주 태만하구나. 학업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잠자기만 일삼으니 어찌 공명하기를 바랄 수 있으리오. 채봉과의 혼사를 물리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묻자, 아들들이 '소자들에게 하문하실 일이 아니옵나.'라고 답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3 사건의 전개 양상

㉔에서 왕 부인은 소대성의 태만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겨 채봉과의 혼사를 물리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승상이 죽기 전에 '왕 부인이 소생에게 뜻이 적음을 보고 채봉에게 간곡히 당부한 것이라.'라는 내용을 볼 때, 왕 부인은 소대성의 태만한 모습을 실망하여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소대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❶ 이 글에서 이 승상이 죽기 전에 소대성에게 '세 아들이 웅충한 일을 하더라도 개치지 말고 오랫동안 평안히 지내게.'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 승상이 소대성에게 불길한 일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❷ 이 글에서 소대성은 '이제 승상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누구 나를 알아줄 것인가.'라고 탄식한 후에, 모든 서책을 물리고 의관을 폐한 채, 하루 종일 잠자기만 일삼고 있다.

❹ 이 승상의 세 아들은 소대성에게 '이제 아버님께서 계시지 않는데다, 우리가 경성으로 돌아가면 소형을 대접할 사람이 없으니 소형의 마음이 무로할까 걱정시오.'라고 하며 소대성이 집을 떠나 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❺ 소대성이 세 아들에게 집을 떠날 의사가 없음을 전하자 왕 부인은 크게 노하며 세 아들과 소대성을 내칠 방도를 의논하고 있다. 이때 이 승상의 장자 태경은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자를 내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며 소대성을 내치는 방법을 은밀히 제안하고 있다.

알아 두기

군담 소설(軍談小說)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전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대개 작품의 배경은 중국이고 외적의 침입과 간신의 반란을 평정하는 가공적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은 명문대가에서 치성을 드려 출생하며 어려서 많은 고난을 겪다가 도사를 만나 도술과 무예를 배우고, 국가 위기에 등장하여 적을 물리치고 왕권을 수호하는 영웅적 활약을 하며 그 공로로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전 13 고전 서사

본문 098~100쪽

1 ❶ 2 ❹ 3 ❸ 4 ❺

월영낭자전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일부다처제라는 사회 제도 속에서 한 가정 내의 여인들이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쟁寵(爭寵)형 가정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이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설정 아래 지상에서의 이합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전반부는 여주인공이 혼인하기까지 많은 장애를 겪는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후반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부인들 간의 갈등이 주로 다루어진다.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은 선인과 악인의 전형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선인과 악인의 대립에서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 정 씨와 호 씨의 갈등은 일부다처제하에서 한 남편을 두고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벌을 받는 정 씨는 편협한 질투심에 눈이 먼 덕이 부족한 인물로, 승리를 하게 되는 호 씨는 남을 탓하지 않는 덕을 갖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주제: 가족 내의 갈등과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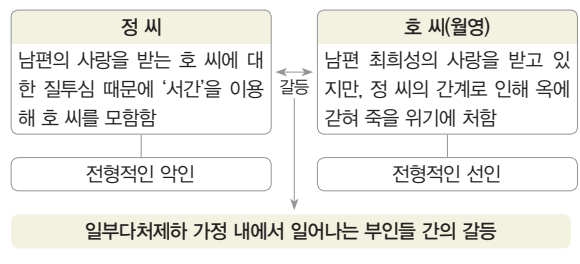
특징: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함

전체 줄거리:

발단	최현은 아들 희성과 호월영을 정혼시키려 하나, 간신의 모해로 부모가 죽어 고아가 된 월영은 피신하여 경어사 부인의 양녀가 됨
전개	월영이 죽은 줄 알고 민 씨와 결혼한 희성은 우연히 경어사 집에 목격 되고 월영과 재회하여 그녀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함
위기	희성은 임금의 장인인 정한의 압력에 의해 정 씨와 결혼하는데, 월영을 시기한 정 씨의 계략으로 월영은 옥에 갇히게 됨
절정	월영은 옥중에서 아들 쌍둥이를 낳고, 희성은 발해를 순행하고 오다가 꿈속에서 호 부인과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길을 재촉함
결말	정한이 월영을 처형하려 할 때 천상에서 선관들이 내려와 처형이 중단되고, 계락을 들린 정 씨는 자결하며 나머지 가족들은 화목하게 지냄

수록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사건의 전개 양상

호 씨는 남편의 근력을 생각하여 탄식하다가 홀연 몸이 곤하여 줄게 되고, 부모가 호 씨의 손을 잡고 우는 흥한 꿈을 꾸게 된다. 이에 호 씨는 불길한 기운을 떨쳐 내고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후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정 씨가 호 씨가 없는 틈을 타 상서 부인과 호 씨의 침소에서 서간을 보고는 있지만, 정 씨가 호 씨를 꾀어서 후원으로 내보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❷ 호 씨는 후원에 있었으므로 정 씨와 상서 부인이 정 씨가 조작한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❸ 정 씨와 상서 부인은 호 씨가 후원에 나가 없을 때 호 씨의 침소에서 정 씨가 꾸민 편지를 뜯어보고 있다.

❹ 호 씨를 법으로 처치하리라는 상서에게, 상서 부인은 호 씨를 우선 옥에

가둬 두고 나중에 자객이 오면 자객을 잡은 후에 국법으로 다스리자고 말하고 있다.

⑤ 호 씨는 옥중에서 자신을 찾아 온 민 씨에게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일이 정 씨의 간계인 것 같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A]에서 호 씨는 ‘이 몸이 죽기는 서럽지 아니하거니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첩의 죄악이 지중하와 이 같은 누명을 싣고 죽사오니~’라고 하며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의 죄가 깊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호 씨는 정 씨의 계략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을 탓하거나 억울함을 드러내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호 씨는 ‘이 같은 누명을 싣고 죽사오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호 씨는 민 씨가 자신을 찾아와 위로한 것에 ‘은혜는 백골난망이로소이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③ 호 씨는 민 씨에게 유자(어린 자식)를 거두어 자신의 고혼을 위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⑤ 호 씨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최희성의 은혜를 만분지일도 갚지 못하고 누명을 싣고 죽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갈등은 악인인 정 씨와 선인인 호 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민 씨는 호 씨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도움을 주는 인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세 부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극적인 재미를 주기 위한 예로는 최희성의 아이를 임신한 호 씨가 옥에 갇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가정 소설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부각하기 위해 선인의 고행담을 곳곳에 삽입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호 씨는 선인의 전형적 인물이므로, 호 씨가 누명에 의해 옥에 갇히는 것은 선인이 악인에 의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이야기인 고행담으로 볼 수 있다.

② 정 씨는 최희성이 호 씨를 아끼는 것을 시기하여 악행을 저지른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정 씨의 악행은 남편 최희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계략을 짜서 상대를 모함하는 정 씨는 악인의 전형을 보여 준다. 이와 달리 호 씨는 고난이 닥쳐도 남을 탓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여인들의 순종적인 모습으로 호 씨가 선인의 전형적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⑤ <보기>에 따르면 사대부 가문에서 일어나는 처첩(처처) 간의 갈등은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하에서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호 씨와 정 씨의 갈등으로 호 씨가 정 씨의 모함을 받는 전개는 그 당시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가정 소설(家庭小說)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고전 소설에서는 처 처 혹은 처첩 간의 갈등이나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 간 갈등을 다룬 작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주제로 하는데, 대체로 악인(惡人)은 음해와 악행이 탄로 나서 징벌을 받아 죽게 되거나 참회하여 선인(善人)이 되고, 선인은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결말을 맺는다.

4 소재의 의미와 기능

㉠ ‘서간’은 정 씨가 거짓으로 꾸며 낸 것으로, 호 씨를 모함하는 수단이 된다. 이를 계기로 상서와 상서 부인은 호 씨에 대해 오해하고 호 씨를 부정한 인물이라고 여기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정 씨에 의해 작성된 거짓 ‘서간’은 호 씨가 외간 남자와 내통하여 죄를 지어 몰살하고 함께 도피를 꿈꾸는 내용만 있을 뿐, 호 씨의 과거 행적을 요약하여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정 씨가 호 씨를 시기하는 이유는 호 씨가 남편 최희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간’에는 정 씨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민 씨가 옥에 갇힌 호 씨를 안타까워하는 것은 ‘서간’ 때문에 호 씨를 이해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이 정 씨의 간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④ ‘서간’은 정 씨가 최희성으로부터 호 씨를 떼어 내기 위해 계략적으로 꾸며 쓴 것으로, 외간 남자와 호 씨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전 14 고전 서사

본문 101~103쪽

1 ② 2 ② 3 ⑤ 4 ①

웅고집전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원래 판소리 열두 마당 중 하나로 불리었다고는 하나, 현재 판소리 사설은 남아 있지 않다. 악행을 일삼는 자를 벌한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효를 저버리고 불도를 모욕하는 악행을 일삼는 실용가를 벌하기 위해 도승이 벗죄으로 허웅가를 만들어 실용가를 벌하는 장면에서는 고전 소설에서 보이는 전기적 요소뿐만 아니라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과 불교적인 인과응보 사상이 나타나 있다. 또한 웅고집이 부를 축적한 인물이라는 점은 당시 화폐 경제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등장하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악행을 일삼던 웅고집의 인과응보와 개과천선

특징: • 인물의 해학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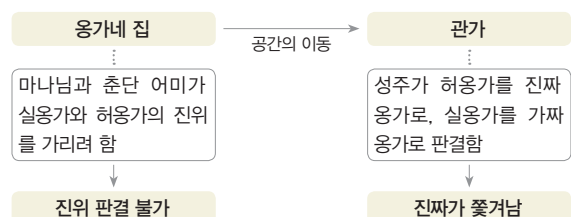
• 판소리 문체의 특징인 현재 진행형의 장면 제시가 나타남

전체 줄거리:

발단	웅고집은 성질이 괴팍하고 고집이 센 데다 인색하여, 팔순의 병든 노모를 병방에 방치하고 돌보지 않음
전개	웅고집의 악행을 혼내 주기 위해 도승이 학대사를 보내지만, 오히려 학대사는 웅고집에게 매만 맛고 돌아옴
위기	도승이 허수아비로 가짜 웅고집을 만들어 보내자, 허웅가와 실용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다투다 관가에 소송을 하려 함
절정	허웅가가 집안 내력과 세간을 더 잘 알아 진짜로 판결되고, 실용가는 매를 맞고 쫓겨나 걸인이 되어 고생함
결말	실용가가 자살하려고 하자 도승이 나타나 훈계하며 부적을 주고, 실용가는 집으로 돌아가 새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

수독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성주는 실용가와 허용가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지 않으며, 실용가의 죄목과 그에 대한 벌도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하나의 장면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지만 제시된 장면에는 나오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마나님은 도덕이 높은 공자도 그의 얼굴과 비슷했던 노나라의 포악한 정치가인 양호로 인해 변을 치렀던 일을 이야기하며, 높은 절개를 가진 자신이 두 남군을 섬겨야 하는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③ 실용가는 자신이 가짜로 판명되어 쫓겨나서야 노모, 부인, 자식을 차례로 열거하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고 있다.

④ 허용가는 남산 위에 봉화 둘 때 인경을 치는 일이나 사대문을 열 때 순라군이 나타나 단속하는 것이 다 격에 맞는 일이듯, 자신 역시 도포에 불뚝 난 자국이 있으므로 진짜 웅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춘단 어미는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듯, 진짜 웅가와 가짜 웅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2 사건의 전개 양상

(가)는 '웅가네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나)는 '관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가)에서 가족들이 진짜 웅가를 밝히는 데 실패하여 (나)에서 소송을 통해 진짜 웅가를 밝히려는 것으로, 둘 다 현실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용가가 '꿈이거든 깨이저라.'라고 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누가 진짜 웅가냐를 밝혀야 하는데, 관가에서는 허용가를 진짜 웅가라고 판결했으므로 이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마나님이 절개 높은 자신이 이런 곤란을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고, (나)에서는 실용가가 진짜인 자신이 쫓겨난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며 탄식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마나님과 춘단 어미가 누가 진짜 웅가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서는 관가로 가서 판결을 받고 있다.

⑤ (가)에서 실용가는 자신이 진짜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가짜 웅가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궁색하게 쫓겨나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에 따라 웅가를 평가했을 때, 웅가는 부를 축적하기는 했지만 늙은 모친을 박대하고, 중을 모욕하는 등 윤리 도덕을 저버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용가가 벌을 받게 되는 결과는 이러한 악행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만으로 송사의 과정에서 성주가 실용가를 가짜 웅가로 판결한 것을 성주가 개인적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허용가가 진짜 웅가로 판가를 내게 된 것은 장면 이외의 부분에서 허용가가 실용가보다 집안의 가계와 세간을 더 정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② 허용가가 성주를 대접하려는 것은 이미 판결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권력과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단순한 감사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성주가 실용가를 귀양을 보내지 않고 곤장만 쳐서 심문하는 이유는 이 글 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④ 군노 사령이 실용가를 내쫓는 것은 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용가가 가짜 웅가로 판명되어 진짜 웅가의 세간을 노리는 나쁜 놈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속담 및 한자 성어

마나님은 웅가가 받은 죄가 '하늘이 내린 죄'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마나님은 팔십 먹은 노모를 학대하고 시중 받으러 온 중들에게 모욕을 주는 등 악행을 일삼은 웅가가 당연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으로,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화복의 값을 받게 됨을 이르거나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름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룸. 또는 '환난(患難)'이 거듭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이다.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세상만사는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禍)가 되고, 어느 것이 복(福)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재앙도 슬퍼할 게 못되고 복도 기뻐할 것이 아님을 이르거나 인생의 길흉화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목적이 수단인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을 이르거나 허술한 계획으로 큰 일을 도모함을 이르는 말이다.

알아 두기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사설을 기록하면서 정착된 소설로, 평민 계층의 진취성을 바탕으로 하여 민중의 참여에 의해 개작되었고, 해학과 풍자를 통해 평민층의 문화적 주체성을 잘 표현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은 일반적으로 '근원 설화 → 판소리 → 소설'의 과정을 거쳐 창작되었고 일부 작품은 신소설로 개작되기도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옹고집전」, 「장끼전」, 「숙영낭자전」, 「배비장전」 등이 있다.

실전 15 현대 극

본문 104~106쪽

1 ④ 2 ③ 3 ① 4 ③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_오영진

해제: 이 작품은 친일 행각으로 번 돈을 지키기 위해 거짓 자살극을 꾸미는 이중생이라는 인물이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광복 이후 당연히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 세력이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희곡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이중생을 '살아 있는'이라고 강조하여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관 속에 누워 있는 이중생을 조롱하고, 부정적 인물인 이중생에게 '각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하여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또한 이중생의 모습을 통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등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친일 잔재 세력이 판치는 병든 사회상의 고발과 풍자

특징: •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의 대비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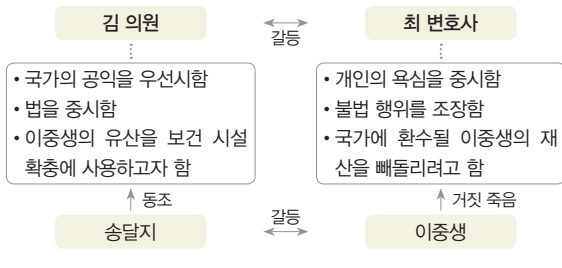
• 극적 긴박감과 희극적 분위기를 공존시킴으로써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줌

전체 줄거리:

발단	이중생은 외아들 하식이를 학병으로 보내는 등 친일 행각으로 재물을 모으고, 광복 이후 무허가 산림 회사를 차린 데다가 권력에 아부하는 등 부를 유지하려 온갖 술책을 부림
전개	이중생이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연행되자, 최 변호사는 이중생에게 전 재산을 사위인 송달지에게 상속하고 거짓으로 죽었다가 나중에 송달지로 행세하라고 제안함
절정	거짓 장례식에 국회 특위의 김 의원이 나타나 송달지에게 무료 병원을 설립하는 데 재산을 헌납할 것을 권하고, 김 의원이 돌아가자 이중생은 이를 허락한 사위를 크게 꾸짖음
하강·대단원	학병으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들 하식이가 돌아와 아버지를 비판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중생은 일을 도와주기 위해 왔던 아낙에게 귀신 취급을 받고 결국 자살함

소품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이 글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김 의원과 최 변호사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두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게 한다. [A]에서 이중생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천박하고 비속한 말을 사용하여 송달지에게 일방적으로 화풀이를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중생이 '일 처리 그렇게 잘하니 끝을 맺어야지.'라고 말한 것은 일 처리를 잘못된 송달지를 탓하는 것으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② '두 팔을 휘두르고 두 발을 궁그르며'라는 지시문에서 보듯 이중생은 과장된 몸짓을 통해 송달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이중생이 '살아 있는, 아니 죽어 있는! 아야, 아니 살아 있는 이중생……, 죽어 있는 이중생'이라 하며 자신을 살아 있다고 해야 하는지 죽어 있다고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고약한 놈', '배라먹을' 등의 비속어를 통해 이중생의 천박한 인품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최 변호사는 '그렇게 됐지 아마, 송 선생?'이라고 하며 송달지에게 자신의 주장에 동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송달지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동조를 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송달지가 최 변호사의 강요에 반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중생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송달지를 이용하여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처럼 유서를 쓰고 죽은 척하고 있다.
- ② 송달지는 보건 시설을 세우는 김 의원의 제안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재산을 보전하려는 이중생의 계획을 들어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중생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최 변호사는 시종일관 김 의원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중생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 ⑤ 김 의원은 이중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최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단호하게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중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생사를 초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의 제목은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을 '살아 있는'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조롱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이중생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을 하다가 오히려 무료 병원을 설립하는데 재산을 몽땅 쓸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사기, 배임, 횡령, 탈세의 죄가 밝혀져 살아 있다고 내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목의 '살아 있는'은 진정으로 살아 있지 못한 이중생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④ '이중생(二重生)'이라는 이름은 두 개의 삶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를 통해 거짓 죽음과 진짜 자살로 두 번 죽는 사람,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 행세를 하는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각하'는 '대통령 각하'처럼 특정한 고위 관료에 대한 경칭인데, 이를 부정적 인물인 이중생에게 사용함으로써 조롱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4 작품의 형상화

극 중에서 이중생이 죽은 척하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이중생 자신만 그 사실을 깜빡 잊은 채 무의식적으로 '그럴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극적 아이러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㉔은 송달지가 이중생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유발하는 대사로, 사건을 긴박하게 만든다.
- ② ㉔은 최 변호사가 김 의원의 말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말로, 무의식적 행동에 의한 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㉔은 최 변호사가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김 의원이 한 말이다.
- ⑤ ㉔은 김 의원이 퇴장하자 이중생이 등장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지시문이다.

알아 두기

극적 아이러니

극 중 상황의 모순이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적 상황을 말한다. 이는 상황적 아이러니라고도 하는데, 작품 속 인물들의 상황이 독자 또는 관객의 예상과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펼쳐질 때 나타난다. 문학 작품에서 이러한 상황적 아이러니는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비극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실전 16 현대극

본문 107~109쪽

1 ③ 2 ② 3 ⑤ 4 ①

8월의 크리스마스_오승욱·허진호·신동환 각본

해제: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사진사와 이 사실을 모르는 주차 단속 요원의 안타깝고 순수한 사랑을 그린 시나리오로, 삶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사랑

으로 엮어 가는 과정을 그려 내고 있다. 절제된 대사와 정적인 장면을 통해 상황을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죽음이 가까워진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고통과 슬픔으로 그려 내기보다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을 추억으로 간직하려는 모습으로 그려 냄으로써, 여느 시한부 인생을 다룬 작품과는 다른 이 작품만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애뜻하고 아름다운 사랑

- 특징: • ‘사진’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마음을 표현함
- 지시문의 비중을 확대하여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부각함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이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제시함

전체 줄거리:

발단	시한부 선고를 받은 30대 사진사 정원은 도로 주차 단속을 하는 다림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끌리게 됨
전개	정원과 다림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 가지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정원은 다림에게 고백하지 못함
절정	어느 날 정원은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 가고, 정원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림은 사진관 앞을 서성이며 정원이 오기를 기다림
하강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된 다림은 더 이상 사진관을 찾지 않고, 정원은 몰래 다림을 지켜보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함
대단원	정원의 죽음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되고, 사진관을 찾아온 다림은 자신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는 진열장을 본 후 행복하게 돌아감

주목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정원	다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림에게 연락하나는 정숙의 질문에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답함 • 찻집 창가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다림을 바라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이 잠겨 있는 사진관에 편지를 집어넣음 • 정원을 기다리다 갑자기 사진관 유리창에 무언가를 던짐
다림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함	당돌한 성격으로 정원에 대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냄
소극적 성격	적극적 성격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S#97’을 제외하고는 대사 없이 지시문만으로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전반적으로 지시문의 비중을 확대하여 대사보다는 행동과 표정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벌어지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정원에 대한 다림의 사랑을 보여 주는 ‘편지’ 등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품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것이 작품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장면의 전환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그에 따라 인물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2 작품의 형상화

‘S#97’에서 정원은 자신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림을 만나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원은 다림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하라는 정숙의 질문에 다림을 만나고 싶은 속마음과 다르게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은 정숙에게 속마음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S#96’에서 다림은 자신의 마음을 정원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 번 문틈으로 편지를 집어넣고, 또 구겨진 편지 봉투는 새 봉투로 바꿔 몸을 구부려 문 밑으로 집어넣고 있다. 이러한 다림의 행동에는 편지를 정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S#105’에서 정원은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물고리며 보고 나서 사진관 문을 열고 있으므로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클로즈업해서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S#108’에서 정원은 찻집 창가에 앉아 분주하게 일하는 다림을 애뜻하게 내다보고 있으므로, 이때 애절한 분위기의 배경 음악을 까는 것은 적절하다.

⑤ ‘S#109’는 정원이 암실에서 자신이 전에 찍어 준 다림의 증명사진을 인화하고 있고 있는 장면이므로, 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 인화와 관련된 현상액, 인화지 등을 소품으로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원이 찻집 유리창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다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다림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정원이 멀리서 다림을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원의 행동은 다림과의 사랑을 간직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정원은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신 즉, 다림과의 사랑은 추억이 되질 않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다림의 증명사진은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글에서 다림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원의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관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정원이 나타나지 않자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후 더 이상 사진관을 찾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림이 정원의 처지를 이해해 더 이상 사진관을 찾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정원은 다림과의 사랑을 간직한 채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다림과의 사랑은 추억이 되질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 안으로 아카시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던 정원의 기억이 추억이 되질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S#97’에서 정원은 ‘갑자기 아카시아 냄새가 맡고 싶어.’라고 하면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한다.

④ 이 글에서 정원이 다림의 편지를 읽고 곧게 접어 봉투 속에 넣는 것은 다림이 전해 준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다림에 대한 정원의 애정을 보여 주는 행동으로 다림과의 사랑이 추억으로 그치는 것과 는 관련이 없다.

4 소재의 의미와 기능

다림은 오랜 시간 기다려도 정원이 사진관에 나타나지 않자 무언가를 던져 ㉠ ‘유리창’을 깨고 있는데, 이러한 다림의 과감한 행동을 통해 그녀의 적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원은 찻집 창가에 앉아 ㉡ ‘유리창’에 손가락을 가만히 갖다 대고 다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기만 할 뿐 더 이상 다림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정원의 소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다림이 ㉠ '유리창'에 무언가를 던지는 것은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정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원이 ㉡ '유리창'을 통해 멀리 있는 다림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림에 대한 섭섭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과 ㉡의 '유리창' 모두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없다.
- ④ 다림은 ㉠ '유리창' 앞에서 정원을 계속 기다리지만 결국 정원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창'은 정원과 다림을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정원은 ㉡ '유리창'을 통해 다림을 바라볼 수 있지만 '유리창'이 둘 사이를 가로막아 더 이상 다림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창'은 다림과 정원을 단절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다림은 ㉠ '유리창'에 무언가를 던져 자신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유리창'이 다림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원은 ㉡ '유리창'에 가로막혀 다림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리창'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전 17 현대 수필

본문 110~111쪽

1 ② 2 ⑤ 3 ①

양잠설 _윤오영

해제: 이 작품은 누에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을 유추하고 있는 수필이다. 이 작품의 글쓴이는 누에가 뿔 앞을 충분히 먹고 여러 잠을 자서 이전의 껍질을 벗겨 내야만 훌륭한 실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왕성한 독서를 하고 깊은 사색을 반복하여 자신대로의 세계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경지에 이른 작가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대로 세계를 이룬 작가가 되는 과정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이를 사람의 일생으로 확장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누에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이해한 사람의 글쓰기 과정

- 특징:** •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대상에서 유추하여 설명함
• 대상의 성장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함

구성:

처음	누에의 성장 과정
가운데 ①	누에의 성장 과정에서 유추한 글쓰기 과정
가운데 ②	누에의 성장 과정에서 유추한 사람의 일생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누에의 성장 과정	사람의 글쓰기 과정
초잠	• 식욕이 왕성함 • 피부가 긴장되고 윤택하며 엿빛을 띠게 됨	• 독서열이 왕성함 • 포부는 부풀대로 부풀고 재주가 빛날 대로 빛남
최면	• 식욕이 감퇴되고 그러다가 아주 단념을 해 버림 • 실을 토해서 제 몸을 고정시키고 고개만 들고 잠	• 사색과 회의에 잠김 • 독서를 하지만 청신한 맛을 느끼지 못함
탈피·기잠	• 탈피를 하고 고개를 돌 • 극도로 쇠약해서 보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함	• 구각을 벗음 • 인생을 탐구하는 경지에 이르나, 정신적으로는 극도의 쇠약기임
고치	•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 초잠, 최면, 탈피, 기잠이 됨 • 오령이 되면 고치가 됨	• 탈피에 탈피를 거듭하며 자기를 완성해 감 • 자기의 모든 역량을 뭉치고, 글 때를 벗고, 자기대로의 세계에 안주하여 성가한 작가가 됨

↓
누에의 성장 과정에서 사람의 글쓰기 과정을 유추함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누에의 성장 과정을 초잠, 최면, 탈피, 기잠 등의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따른 누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이러한 누에 성장 과정을 통해 사람이 글을 쓰는 과정을 유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탈속이란 속세를 벗어난다는 뜻인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탈속적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④ 이 글에서는 누에의 성장 과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 누에에 대한 일반적 인 통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글에서는 누에와 사람을 대비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을 통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글쓴이는 사람의 일생에서 육십대가 되면 이미 오령기라고 하며, 오령기에는 크든 작든 고치를 짓고 자기 세계에 안주할 때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이제 육십대에 들어선 작가 B의 글이 군더더기가 있어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은 B가 자기대로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누에의 성장 과정에 대응해 보면, 오령기에 이른 누에가 작은 고치를 지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글쓴이는 식욕이 왕성하여 누에가 뿔을 많이 먹는 것은 독서열이 왕성하여 많은 독서를 하는 문학 소년 시절 때와 꼭 같다고 하고 있다.
-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누에의 체내 지방질이 충분해서 피부가 긴장되고 윤택하며 엿빛을 띠게 되는 것을 독서를 많이 한 작가가 포부는 부풀 대로 부풀고 재주는 빛날 대로 빛나 우수한 작품들을 쓰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
- ③ 이 글에서 글쓴이는 최면기에 들어선 누에가 단념을 해 버리고 잠을 자는 것에서 사색과 회의에 잠긴 작가가 독서를 해도 청신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침울한 사색에 잠기는 것을 유추하고 있다.
- ④ 이 글에서 글쓴이는 누에가 초잠, 최면, 탈피, 기잠의 과정을 되풀이하여 오령이 된 것을 최후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뭉치고 글 때를 벗고 자기대로의 세계에 안주하여 성가한 작가가 되는 것에 대응하고 있다.

3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이 글의 글쓴이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 낡은 껍질을 벗고 인생을 탐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자기대로의 세계를 만들어야 성가(成家)한 작가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자기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반복되는 노력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 없이는 감흥을 주는 글을 쓸 수 없다는 ①이 이 글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고쳐쓰기 과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명언으로, 이 글에서는 고쳐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③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명언으로, 이 글에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는 풍부한 독서와 깊은 사색을 반복하여 한 단계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매우'와 '무척'과 같은 모호한 수식어를 쓰지 말고 명료하게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명언으로, 이 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순간 나오는 생각으로 써야 가치 있는 글이 된다는 내용의 명언으로, 이 글에서는 순간 나오는 생각보다는 탈피에 탈피를 거듭하여 자기를 완성한 후에 쓴 글을 가치 있게 보고 있다.

1 ③ 2 ② 3 ①

주몽설 권근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대리인인 주몽을 내세워 역발상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평정을 잃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태도가 필요함을 깨우쳐 주고 있는 고전 수필, 설(說)이다. 이 작품에서는 손의 물음에 대한 주몽의 대답을 통해 참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몽은 손에게 물 위에서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늘 경계하면서 사는 생활이 평탄한 땅을 디디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는 평안할 때 훗날의 근심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나중을 돌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조심스러운 마음가짐과 균형을 잡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또한 글의 마지막 부분에 주몽의 노래를 삽입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제를 부각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

특징: • 손과 주몽의 문답으로 글이 전개됨

• 역발상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교훈을 전달함

구성:

처음	손의 질문 - 배 위에서 삶의 대한 의문 제기
가운데	주몽의 대답 -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 제시
끝	주몽의 노래 및 손과의 작별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손의 질문	주몽에게 왜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배에서 사느냐고 물음
↓	
주몽의 대답	• 배에서 살면 위험을 딛고 조심하며 살게 됨 •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을 지키며 살게 됨
↓	
주몽의 노래	주몽이 홀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아갈 것임을 보여 줌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손의 질문에 대한 주몽의 대답, 그리고 주몽의 노래로 구성되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현실에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삶의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드러나 있지만 현재를 과거의 모습과 대비시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손의 질문 - 주몽의 대답 - 주몽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손이 주몽에게 왜 배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느냐고 묻자, 주몽이 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②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에서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거대한 물결과 한바탕 큰 바람이라는 자연에 빗대어, 배 위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인간 세상에서의 삶이 더 위험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은 배 위에서 살아가는 삶과 육지에서 살아가는 삶을 대조하여 배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스스로 항상 조심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주몽은 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 뱃전을 두들기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결말은 여운을 남기며 주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준다.

2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보통 사람들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물에서 사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글의 주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뒤집는 역발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의 민 영감 역시 '나'가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밤에 못 자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여 깨우침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몽은 손에게 항상 경계하고 평정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고, 민 영감은 '나'에게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둘 모두 상대방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줄 뿐,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라는 제안은 <보기>에서 민 영감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손은 주몽의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자신의 불행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몽 또한 이와 관련된 조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해서는 주몽이 노래를 통해 드러내고 있을 뿐, 민 영감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⑤ 주몽이나 민 영감 모두 역발상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하지는 않았다.

알아 두기

설(說)

한문학 양식의 한 갈래로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시비를 따져 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것으로, 국문학상의 갈래로는 수필에 해당한다. '설'은 사물 또는 사건(사실, 개별적 체험)의 뜻과 이치를 해석하고 거기에 글쓴이의 의견(깨우침, 교훈)을 서술하는 것으로, 우의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제시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3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주몽은 세상살이라는 것이 거대한 물결에 떠 있는 것과 같이 위험한 것이니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편안한 데서 살게 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고 하고 있다. 안전하지만 나태해지는 땅에서의 삶이 아닌, 위험을 딛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배에서의 삶을 선택한 주몽을 통해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사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주몽이 배에서 사는 것은 재미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면서 평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③ 주몽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배에서 살고 있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배에서 산다는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⑤ 주몽이 위태로운 배에서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삶의 이치를 통달하여 그에 따른 삶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1 ⑤ 2 ③ 3 ③

가 서경별곡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대동강에서 임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이별의 정한(淸恨)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 순응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여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임을 따라가겠다고 나설 뿐 아니라 임이 새로운 여자를 만날 것을 짐작하고 그 여인에 대한 질투심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작품이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대동강은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이별의 상징물로, 이별의 정한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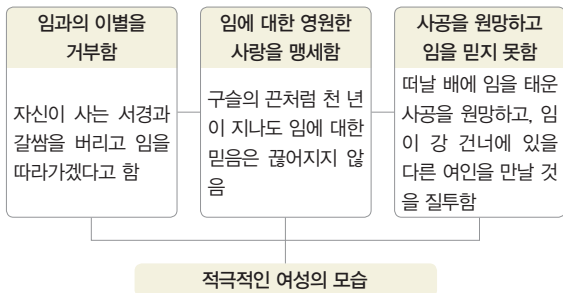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 반복법, 설의법, 대구법 등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함
• 후렴구와 조음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구성:

1연	이별의 거부와 임에 대한 연모의 정
2연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3연	임을 싣고 떠난 사공에 대한 원망과 임을 믿지 못하는 마음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나 정과정_정서

해제: 이 작품은 한글로 전하는 고려 가요 가운데 작자가 밝혀진 유일한 노래로, 고려 의종 때의 문인인 정서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참소가 거짓임을 말하고 다시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화자의 소망을 간절하게 담아내고 있다. 고려 가요 중 향가의 잔영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10구체 향가의 맥을 잇고 있다. 3단 구성이나 '아소 남아'에서 볼 수 있는 낙구(落句) 첫머리의 감탄사 등은 향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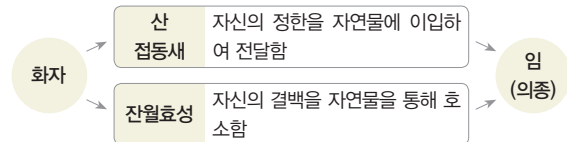
주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특징: • 상징과 영탄법 등을 사용하여 억울한 심정을 표현함
• 형식적 측면에서 향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

구성:

기	자신의 결백 호소
서	결백을 직접적으로 해명
결	임에 대한 애원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다 서해_이성복

해제: 이 작품은 역설적인 발상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이다. 이 시에서 '서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당신이 존재할지 모르는 공간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 공간에 가 보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계실 자리로 남겨 둠으로써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당신을 찾지 않는 화자의 역설적인 태도를 통해 당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애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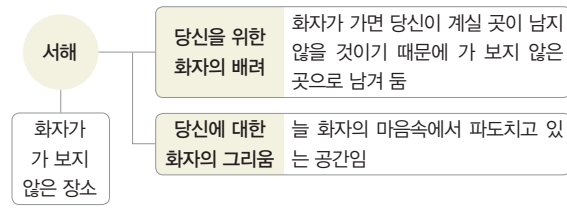
주제: 당신에 대한 배려와 간절한 그리움

특징: • 화자의 역설적인 태도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냄
• 도치법, 활유법, 설의법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함
•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나타냄

구성:

1연	서해에 가 보지 않은 이유
2연	여느 바다와 다르지 않은 서해의 모습
3연	서해를 가 보지 않은 곳으로 남겨 두겠다는 다짐과 그 이유
4연	늘 마음속에서 파도치는 서해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표현상의 특징

(가)~(다)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여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와 (나)에서는 도치된 문장을 찾을 수 없다.

② (가)~(다)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사상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에서는 '아소'와 같은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만, (가)와 (다)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④ (나)에서는 '산 접동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와 (다)에서는 감정을 이입한 자연물을 찾을 수 없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나)의 '산 접동새'는 '나'의 부족함을 비유한 대상이 아니라, 제삼자의 모함 때문에 임과 이별하게 된 화자의 슬픔이 이입된 대상이다. 따라서 '산 접동새'가 '나'의 자책을 심화하는 대상이라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서경'은 임과 이별하기 싫은 화자가 떠나려는 곳으로, 임이 이탈한 공간이다.
- ② (가)의 '사공'은 '임'이 대동강을 건너도록 도와준 인물로,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못 사람들의 말'은 화자에 대한 사람들의 참소로, 화자가 임이 있는 곳에서 이탈하게 된 계기에 해당한다.
- ⑤ (나)의 '돌려 들으시어'는 '임'에게 사람들의 참소를 돌려 물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임이 있는 곳으로 귀환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다.

알아 두기

'임'의 다양한 의미

'임'은 화자가 사랑하고 연모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우리의 시가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다.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임'은 향유 계층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데, 고려 가요나 사설시조, 민요 등과 같은 평민들의 노래에서는 주로 남녀 간의 연정(戀情)의 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대부 계층이 창작한 가사나 시조에서 '임'은 충절의 대상인 '임금'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다)의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는 당신이 계시지 모르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는 당신이 계시지 않자리를 남겨 두기 위해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가 화자와의 만남을 소망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바다'가 '몸'을 뒤척이는 것은 활유법을 활용해 당신이 있는 곳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의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다'를 통해 화자가 '그곳 바다'에 가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다)의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를 통해 화자가 그곳 바다가 '여느 바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④ (다)의 '가 보지 않은 곳을 남겨 두어야 할까 뵈나다 / 내 다 가 보면 당신 계시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를 통해 화자가 그곳을 가 보지 않은 곳으로 남겨 둔 이유를 알 수 있다.
- ⑤ (다)의 '내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를 통해 '한쪽 바다'는 늘 화자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그리움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유형

실전 02 갈래 복합

본문 118~119쪽

1 ③ 2 ③ 3 ⑤

가 안민가 _충담사

해제: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인 충담사가 지은 10구체 향가로, 치국(治國)의 이념을 노래하고 있다.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향가와 달리 유교적 이상인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 서정보다는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잦은 천재지변으로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예술성보다는 목적성과 교훈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안

특징: •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빗대어 친근감과 설득력을 높임
• 조건문을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음

구성:

기(1~4구)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
서(5~8구)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결(9~10구)	나라가 태평할 방안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임금, 신하, 백성이 가족 같은 사랑과 유대를 나눔	백성이 사랑을 알게 됨
힘든 백성을 먹여 다스림	나라가 다스려짐
임금, 신하, 백성이 자기 본분을 다함	나라가 태평해짐

유교적 통치 이념

나 수오재 _정약용

해제: 이 작품은 '수오재', 즉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당호(堂號)를 소재로 하여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수오재'라는 이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 없지만 '나'는 잃어버리기 쉬우므로 굳게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리고 '나'를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상적인 자아와 순수하고 근원적인 내면에 해당하는 본질적 자아로 구분하고, 본질적 자아를 잃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던 지난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주제: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특징: • 자문자답을 통해 깨달음을 도출함
• 의문을 제기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냄

구성:

기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승 ①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
승 ②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전	귀양지에 온 후 비로소 본질적 자아를 찾은 '나'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현상적 자아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아	'나'	본질적 자아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아
----------------------------	-----	------------------------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수양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함

1 표현상의 특징

(나)에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천하 만물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나열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나)에서 '나'라는 것이 떠나가게 되는 사례를 나열하여 '나'를 지켜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왕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손하면서도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나)의 글쓴이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단호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는 '~한다면 ~ㄹ 것입니다.'라는 조건문을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지만, (나)에서는 조건문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㉔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백성들의 말로,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마음이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㉔은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태평해져 백성들이 현실에 만족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임금의 아버지, 신하를 어머니, 자식을 어린아이에 빗대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 듯 임금과 신하도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② ㉔은 당대 백성들이 천재지변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습을 '구물거리며 사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④ ㉔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각자 자기의 본분을 지킨다면 나라가 태평해진다는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다.

⑤ ㉔은 '~것입니다.'라는 공손한 어투를 사용하여 경덕왕에게 각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다면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알아두기

「안민가」의 배경 설화

경덕왕이 3월 3일에 귀정문(歸正門) 다락 위에 올라 신하들에게 누가 영복승(榮福僧)을 데려 오겠느냐고 두 의미(화려하게 옷을 입은 승려의 의미와 영화롭게 일을 해줄 승려의 의미)를 지닌 말을 하였다. 신하들은 영복승의 의미를 '화려하게 옷을 입은 승려'로 보고, 마침 그 앞을 배회하던 위풍이 있는 한 대덕을 데려왔는데, 왕은 자기가 바라는 영승(榮僧)이 아니라고 돌려보냈다. 그 다음에 누더기 옷을 입고 앵통(櫻筒)을 진 다른 중이 남쪽으로부터 걸어왔다. 왕이 기뻐하며 그 중을 맞이하며 이름을 물으니 충담이라고 하였다. 왕은 일찍이 충담의 「찬가파랑사뇌가(讚耆婆郎詞腦歌)」가 뜻이 매우 높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어서, 이를 충담에게 물으니 과연 그렇다고 하였다. 이에 왕이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노래[理安民歌]를 지어달라고 충담에게 요청하니, 충담은 '이안민가'를 짓지 않고 '안민가'를 지어 왕에게 바쳤다. 왕이 아름답게 여겨 왕사로 봉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이러한 유래담에서 「안민가」는 경덕왕이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하고자[理安民] 한 의도에 충담은 백성을 편하게[安民] 하는 노래로 바꾸어 대답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나)의 글쓴이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고향을 떠나 귀양을 와서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던 삶을 멈추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글쓴이는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하며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수오재'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나)의 글쓴이는 밭, 집, 꽃나무와 과일나무 등은 누가 가지고 달아날 수 없기 때문에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나'가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라고 한 후,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그러니 꿈공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않겠는가?'라고 하며 철저한 자기 수양을 통해 '나'를 굳게 지켜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신유형

실전 03 갈래 복합

본문 120~122쪽

1 ① 2 ② 3 ④ 4 ③

가 거산호 2_김관식

해제: 이 작품은 산에 대한 예찬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태도를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사람'과 '산'을 대비하여 항상 변하는 사람과 달리 변하지 않는 산을 사랑한다고 하며,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한 산의 덕성을 평생 배운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산을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며 산의 정기를 그리며 산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화자는 산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며 산과 더불어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산을 동경하는 탈속적인 삶의 추구

특징: •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표현함
•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드러냄

구성:

1~4행	사람과 대비되는 변함없는 산
5~8행	산을 보며 배우는 삶
9~11행	영원한 안식처인 산
12~15행	산의 정기를 그리며 사는 삶

작품 한 번에 정리하기

화자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산을 보고 배움 • 산에서 자라나 거기에 묻히고 싶음 • 산에서도 산을 그리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달리 변하지 않음 •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함 • 영원한 안식처임
동경, 예찬	
자연 친화적 태도	

나 우리가 물이 되어 _강은교

해제: 이 작품은 물과 불의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순수한 세계에 대한 염원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에서 '물'은 생명과 평화, 평화의 이미지를 지니고, '불'은 죽음과 파괴, 소멸의 이미지를 지니는데, 화자는 '불'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태우고 난 후에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며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에서 합일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즉 화자는 물과 불이 지닌 원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순수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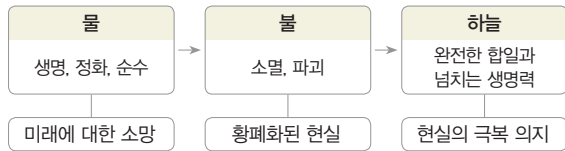
주제: 조화로운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소망

특징: • 물과 불의 대비적 상징을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함
• 가정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냄

구성:

1연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소망
2연	물이 되어 바다에 닿고 싶은 마음
3연	불로 만나려 하는 현실
4연	불이 지난 뒤, 물로 만나고 싶은 소망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다 화단 _이태준

해제: 이 작품은 화초를 인위적으로 가꾸는 노인을 보며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수필이다. 글쓴이는 있는 재주를 다 내어 철사를 두르고, 가지를 자르고 붙이는 등 인위적으로 화단을 가꾸는 노인의 행위에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며, 자연은 그것 자체로 최선이지 인간이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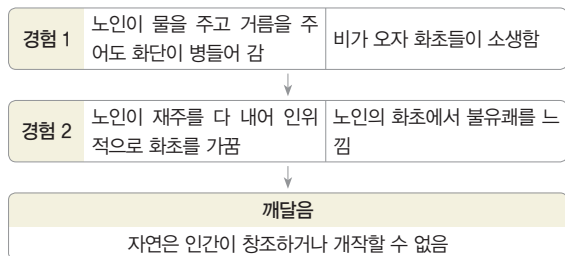
주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특징: • 예스러운 어투와 외래어를 사용하여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냄
•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냄

구성:

경험 1-①	노인이 공을 들여도 병들어 가는 화단
경험 1-②	비가 오자 기적과 같이 소생하는 화초들
경험 2-①	공을 들여 화초를 가꾸는 노인
경험 2-②	노인의 화초보다 자연에서 자라나는 봉선화를 더 아름답게 느끼는 '나'
경험 2-③	노인의 화단에서 불유쾌를 느끼는 '나'
깨달음	자연은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1 표현상의 특징

(가)에서는 '산'이라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도 '그대'라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불이 지난 후 흐르는 물로 만나자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의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의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산의 상긋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④ (가)의 '산아'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산에 대한 예찬적 태도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다)에서는 영탄적 어조가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다)에서는 '고이였다', '수군거리였다', '어루만지였다'와 같은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황을 장황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에서는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은 맨날 변하는 인간과 달리 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삶과 죽음이 이어진다는 동양적 세계관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속세(장거리)를 멀리하고 자연(산)을 지향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에서는 산을 의인화하여 산을 겸허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겸양을 미덕으로 삼는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④ ㉣에는 산과 삶과 죽음을 함께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소박한 산나물 이파리에서 상긋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무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표현상의 특징

(나)에서는 특별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는 소멸과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합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만난다면', '흐른다면', '한다면', '닿는다면'과 같은 가정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불로 만나려고 하는 현재와, 물로 만나자는 미래를 대비하여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③ (나)에서는 생명, 정화 등을 이미지를 나타내는 '물'과 소멸, 파괴 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불'의 대립을 통해 '조화로운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우르르 우르르', '푸시시 푸시시'와 같은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알아 두기

시어의 원형적 이미지

물	순수, 생명, 모성 혹은 여성, 정화와 재생, 순환, 조화와 합일
불	죽음, 파괴와 소멸, 상승의 에너지, 남성, 사랑의 열정
나무	인간의 형상, 상승 욕구, 초월의 의지, 생명력, 시간의 흐름
바다	생명, 모성, 죽음, 부활과 재생, 영원, 동경
하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순결, 무(無), 구원, 절대자

4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다)의 글쓴이는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글쓴이가 노인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가던 화단이 비를 맞고 기적적으로 회생한 일화를 제시한 것은 인공은 자연에 비할 수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받게 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노인의 재고를 칭찬하지 않고 있으므로, 칭찬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화초를 인공적으로 가꾸는 노인의 모습에 불유쾌를 느끼고 있으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겉모양을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있지 않다.

1 ⑤ 2 ③ 3 ⑤

가 토끼전 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자라의 꿈에 빠져 수궁에 잡혀간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목숨을 구한다는 내용의 판소리계 소설로, 동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여러 계층을 대변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위해 토끼를 죽이려고 한 용왕은 부당한 권력 계층을, 용왕의 명을 받고 토끼를 잡으러 간 자라는 충성을 중시하는 관료 계층을, 욕심에 눈이 멀어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기지로 극복하는 토끼는 꾀박받는 서민 계층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귀족 사회를 상징하는 수궁과 서민 사회를 상징하는 육지를 대립적 공간으로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수궁 → 육지 → 수궁 → 육지'와 같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공간의 이동마다 위기와 극복이 반복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주제: • 허욕에 대한 경계와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

-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 임금에 대한 충성

특징: • 우화적 수법으로 당대 지배층을 풍자함

- 과장, 대구, 열거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한

전체 줄거리:

발단	용왕이 병에 들자 세 명의 도사가 토끼의 생간이 약이 된다고 하고, 자라는 문어와의 다툼 끝에 토끼를 잡으러 가게 됨	수문
전개	자라는 육지로 나가 토끼를 만나고, 자라의 감언이설에 유혹당한 토끼는 자라의 등에 업혀 용궁으로 따라감	
절정	자신의 간을 내놓으라고 하는 용왕의 말에 놀란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말을 믿은 용왕은 자라에게 토끼를 육지로 데려다 주라고 함	
결말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자라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숲속으로 달아나고, 자라는 탄식하며 수궁으로 돌아감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용왕	자라	토끼
자신의 목숨을 위해 토끼를 죽여 간을 약으로 먹으려고 함	용왕을 위해 육지로 나아가 토끼를 꾀어 수궁으로 데리고 감	자라의 감언이설에 유혹을 당하지만 기지로 상황을 극복함
절대 권력을 누리며 횡포를 부리던 지배 계층	임금에게 충성하는 관료 계층	지배 계층의 횡포에 고통을 받던 피지배 계층

토끼전의 등장인물은 각각 다양한 계층을 상징함

나 토끼화상 _작자 미상

해제: 일명 '토끼 타령'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토끼를 잡으러 육지에 가는 자라가 토끼의 행동을 모른다고 하자 용왕이 화공들을 불러 토끼 화상을 그려 주는 내용을 담은 잡가이다. 이 작품은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이었으나 부분 창으로 자주 불린 끝에 판소리에서 분리되어 잡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토끼 화상을 그리기 위한 준비, 토끼 화상을 그리는 과정, 토끼 화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항목을 나열하면서 수사적 표현을 첨가하는 판소리 진술의 특징이 드러난다.

주제: 토끼 화상을 그리는 과정

특징: • 열거와 반복을 통해 토끼의 모습을 그리는 과정을 묘사함

- 판소리에서 부분 창으로 자주 불리면서 잡가화된 부분임

구성:

1~9구	토끼 화상을 그리기 위해 갖은 화공을 부르고 화구를 준비함
10~16구	부위별로 토끼의 화상을 차례대로 그림
17~22구	완성한 토끼 화상을 평가함
23~24구	토끼 화상을 자라에게 줌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토끼 화상을 그리기 위한 준비	다양한 화공들을 부르고 다양한 화구들을 준비함
토끼 화상을 그리는 과정	눈, 코, 귀, 입 등 다양한 부위별로 토끼 화상을 그림
토끼 화상에 대한 평가	아미산 반륜토보다 더 그럴듯함

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B]에서 자라는 팔다리를 집어넣으면 다른 사물처럼 보여 남모르게 토끼를 잡아 올 수 있다고 하며, 못생겨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권세가들이 자라의 고기를 구하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문어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A]에서 문어는 자라의 논리를 반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문어는 '네 모양을 볼작시면 사면이 넓적하여 나무 접시 모양이라. 작고 못생기기로 둘째가라면 대단히 서러워할 터이지.'라고 하며 자라의 외모가 형편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② [A]에서 문어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잡아다가 끓는 물에 솟구쳐서 자라탕을 만들어 동반 서반 세가지제 구하니네 고 기라. 무슨 수로 살아오라?'라고 하며 권세가들이 자라 고기를 구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라를 위협하고 있다.

③ [B]에서 자라는 팔다리와 머리를 집어넣어 다른 사물처럼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자신에게 있음을 거론하면서 토끼를 잡아 오는 일의 책임자가 자신임을 내세우고 있다.

④ [A]에서 문어는 '범 모르는 하룻강아지요, 수레 막는 쇠뿔레로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토끼를 잡아 오는 일에 앞장선 자라의 행동이 무모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B]에서 자라는 '너는 우물 안 개구리라.'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자라가 토끼를 잡으러 가는 일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문어의 주장이 편협함을 지적하고 있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C]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여러 화구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에서는 '오징어 불러 먹 갈아 양모 화필을 듬뿍 풀어 / 백릉 설화 간지 상에 이리저리로 그릴 때'라고 하며 화구들의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그렸는지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여 화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C]에서는 화공을 출신에 따라 분류하고, 각 화공의 이름과 각 화공들이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지를 소개하여 장면을 확대하고 있다.

② [C]에서는 '화공들이 둘러앉아서 토끼 화상을 그리는데 각기 한 가지씩 맡아 그려'라고 하며 화공들이 토끼 화상을 각기 한 가지씩 맡아 나누어 그리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갖은 화공이 다 모여서 토끼 화상을 그릴 때'라고 하며 여러 화공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상황만 제시하고 있다.

④ [C]에서는 용왕이 자라에게 토끼 화상을 주는 장면을 '왕이 보시고 크게 기뻐하여 모든 화공에게 각기 천금씩 상으로 주시고, 그 화본을 자라에게 주며 어서 길을 떠나라 하신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아나 옛다 별 주부야 /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라고 축약하고 있다.

⑤ [C]에서는 '천연한 토끼라'라고 하며 간략하게 토끼 화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고시를 변용한 '아미산 반류토인들 여기서 더할쏘냐'라는 감탄을 통해 토끼 화상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3 서술상의 특징

㉠에서는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체 부위인 '배'와 물 위에 떠다니는 '배'의 동음이의 관계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문어의 외양을 묘사하여 토끼를 사로잡아 오겠다는 자라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자라는 뛰어난 용맹을 지녔던 초패왕과 나팔룬(나팔레웅)이 실패한 고사를 인용하여 문어가 자신의 지혜를 헤아릴 수준이 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 자라는 육지에 사는 토끼와 달리 바다에 사는 자신의 상황을 부각하여 토끼 화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는 '~을 그린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알아 두기

잡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흥행했던 가창 갈래이다. 민요와 판소리, 가사, 사설시조 등의 사설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각 하위 범주마다 전문적인 연행층이 존재하였다. 잡가는 민속의 노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민요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민요가 비전문적이며 생활과 직결된 노동이나 의식 그리고 유희와 관련되어 자족적 성격이 강한 반면, 잡가는 전문적인 소리꾼이 유희 공간에서 청자를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연행했다는 차이가 있다.

신유형

실전 05 갈래 복합

본문 126~128쪽

1 ⑤ 2 ② 3 ④

가 독 짓는 늀은이 _황순원

해제: 이 작품은 일생을 독 짓기에 바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세계와 치열하게 대결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작가는 개인의 몰락과 전통적인 것의 쇠퇴라는 문제 제기를 넘어 문명 이전의 순수한 삶을 다음 세대로 이어 주지 못하는 한 자연인의 비극적 종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독을 대신해서 가마 안에서 최후를 맞는 송 영감을 통해 위대한 장인상을 구현하고 있다.

주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

특징: •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직접 제시함
• '독'이라는 중심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

전체 줄거리:

발단	자신과 어린 아들을 버리고 아내가 젊은 조수와 함께 도망을 치자 송 영감은 심한 분노를 느끼지만 생계 때문에 조수가 지어 놓은 독들을 깨지 못함
전개	송 영감은 어린 아들을 위해 다시 독 짓는 일을 시작하지만 병이 든 탓에 계속해서 쓰러짐
위기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아들의 입양을 주선하지만 송 영감은 이를 거부하고 독 짓는 일을 서두름
절정	한 가마가 다 차지 못했지만 조금만 마음에 독을 굽기로 한 송 영감은 조수가 지은 독과 달리 자신이 지은 독들만 터져 나가자 다시 쓰러짐
결말	깨어난 송 영감은 앵두나뭇집 할머니에게 아들의 입양을 부탁하고, 자신은 독 가마 속으로 들어가 최후를 맞음

수독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독'의 상징적 의미
• 송 영감의 분신 • 송 영감이 지키고자 하는 장인 정신
↓
송 영감은 '독'을 짓는 가마에서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장인 정신을 구현함

나 독 짓는 늀은이 _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해제: 이 작품은 황순원의 소설 '독 짓는 늀은이'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일생을 도공으로 살아온 인물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은 인물의 극적인 감정 변화를 잘 표현하였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감동적으로 그려 비장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원작 소설과 달리 앵두나뭇집 할머니의 대화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원작이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어 가는 세대 변화에 대항하는 송 영감의 예술가적 집념과 좌절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시나리오는 송 영감의 태도뿐만 아니라 혈육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간 본연의 애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주제: 예술에 대한 집착과 좌절, 인간 본연의 애정

특징: •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영화의 시나리오임
• 고집스럽고 타협할 줄 모르는 장인의 집념을 잘 드러내고 있음

전체 줄거리:

발단	독을 구우며 홀로 생활하던 송 영감이 우연히 옥수라는 젊은 여자의 생명을 구하게 됨
전개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옥수는 송 영감과 함께 살게 되고 아들 돌이까지 낳게 됨
절정	어느 날 석현이라는 사람이 송 영감에게 일을 배우러 찾아오고, 옥수는 석현에게 마음을 빼앗겨 두 사람은 함께 도망침
하강	옥수를 찾지 못하자 송 영감은 돌이를 양자로 보내고, 자신은 가마 속으로 들어가 죽음
대단원	여러 사건 끝에 홀로 집으로 돌아온 옥수가 죽은 송 영감과 돌이에게 용서를 구함

수독

작품 한번에 정리하기

독 짓는 행위의 의미	→	•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항하려는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 • 송 영감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유일한 수단
-------------	---	---

1 서술상의 특징

(가)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서술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서술의 초점을 주인공인 송 영감에 맞추어 아들을 보낸 후 그가 느끼는 공허감과 죽음으로 이루지 못한 예술혼을 완성하겠다는 그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

② (가)에서는 송 영감의 처지로 인해 비극적인 분위기가 드러나지만 송 영감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반전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의 진행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④ (가)는 서술의 초점을 송 영감에게 맞추어 송 영감의 심리와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2 작품의 형상화

'S#83'과 'S#85'는 뱀손이가 나그네에게 죽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 독을 굶긴 송 영감의 모습을 회상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S#83'과 'S#85'의 외화면 목소리는 현재 뱀손이의 목소리로, 나그네가 과거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당시 송 영감의 행위와 그 행위에 담긴 의미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객들은 외화면 목소리를 통해 죽음을 앞둔 송 영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뱀손이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극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화면에서는 온 힘을 다해 독을 굶는 송 영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자체로는 극의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③ 'S#83'과 'S#85'의 외화면 목소리는 송 영감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뱀손이의 목소리이다. 따라서 주인공이 자신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뱀손이는 송 영감이 독을 짓고 굶는 과정과 송 영감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함께 한 인물이다. 따라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주인공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뱀손이는 대사를 통해 송 영감의 행위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객은 뱀손이의 대사를 통해 제시되는 장면을 면밀하게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설명이 구체적인 만큼 장면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한평생 독 짓는 일을 하며 살아온 송 영감에게 독은 예술혼이자 자존심이다. 따라서 그러한 독이 깨진 것은 송 영감이 예술혼을 이루지 못한 것을 뜻하는 동시에 송 영감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독 조각을 통해 송 영감에게 남은 장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표현해야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송 영감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가)와 달리 (나)에서는 뱀손이가 등장하여 송 영감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송 영감은 죽기 직전 뱀손이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는데, 여기에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② (가)와 달리 (나)에서 송 영감은 눈을 부릅뜬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송 영감이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에서 송 영감의 가슴에 한이 맺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송 영감의 주검을 태우는 석양의 빛'이라는 부분에서 (나)의 시간적 배경이 해가 저무는 때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의 '열

어젯힌 곁 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송 영감은 기던 걸음을 멈추었다.'를 통해서 송 영감이 죽음을 맞이하던 시간이 해가 저무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송 영감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를 가마 안쪽으로 설정하고 있다. 송 영감은 자신이 평생 바쳐 지어 온 독을 대신해 가마에 들어감으로써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삶의 회한과 좌절을 승화하려는 행위인 동시에 예술가적 혼을 완성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beige background and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beige background and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